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9년 9월호

리아호나

"코브라 효과"와 자녀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법, 12쪽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 18쪽

죽은 세쿼이아 나무에서 얻은 영적 복리에 관한 교훈, 26쪽

영을 받고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3가지 교훈, 36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사진: GETTY IMAGES

카보베르데의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프라이아에 건립될 예정인 성전

교회 회원 **14,205**

42 집회소

전임 선교사 **+100**

9 10개의 섬 중 사람이 거주하는 섬, 회원과 선교사들은 9개 섬 모두에 거주하고 있다

아프리카 서해안까지의 거리(km) **560**

1989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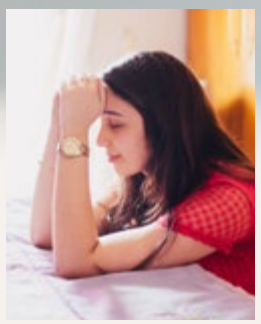
1991 카보베르데 회원들이 선교사 부름을 받기 시작한 해

1994 복음 전파를 위해 섬들이 공식적으로 헌납된 해

2012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된 해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GlobalHistories에서 세계 곳곳의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본다.

성역을 행할 때
영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또한 도울 것인가?)
8



회복 탄력성: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영적 갑옷
린 지 로빈스 장로
12

사도의 서한
엠 러셀 밸라드
회장
26

하늘의 인도를 받고
인식하는 일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36

회복 탄력성이라는 자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우루과이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종종 선교 사업을 높은 수준의 대학 강좌를 신청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이란 마치 근면과 인내에 관한 고급반 수업을 듣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훗날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일부 젊은이들은 인생이 주는 힘든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대학 신입생들과 군대 신병들, 심지어는 일부 전임 선교사 중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이들을 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이 우리가 겪어 온 삶보다 더 수월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문화는 의도치 않게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이 좀 더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강력한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누가복음 2:52 참조) 12쪽에서 저는 그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청남 청녀들을, 즉 오늘날의 도전에 맞서 이기도록 당신이 직접 예비해 두신 그들을 우리가 강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목차

5 자녀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6 신앙의 초상
데비 콜, 아일랜드 렌스터
성폭행 사건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으나 복음은 그녀에게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 보도록 해 주고 어려움을 이겨 낼 힘을 주었다.

8 성역의 원리
성역을 행할 때 영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또한 도울 것인가?)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2 회복 탄력성: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영적 갑옷
린 지 로빈스 장로
선택의지를 존중해 주면 자녀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18 자립에서 오는 축복
우리의 진로를 바꾼 수업
루비오 부부가 그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한 방법.

20 연차 대회 노트
2019년 4월 연차 대회

22 후기 성도의 소리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교사의 세탁물 주머니,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는 현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 위급한 상황에서 피어난 우정, 조상과 후손을 이어 주는 음악.

26 사도의 서한
엠 러셀 밸라드 회장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의 인도.

32 주의 말씀과 뜻
『성도들』 제2권에서 발췌한 이 내용은 윈터쿼터스에서 고난을 헤쳐 나간 개척자들과, 남태평양에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36 하늘의 인도를 받고 인식하는 일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 때이다.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침을 소개한다.

짧은 기사

표지
사진: Pixdeluxe/Getty Images

섹션

청년 성인
40
완벽해지려는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며
우리의 영원한 관점은
제한된다.
청년 성인들이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완벽주의를**
극복하는지 읽어 본다.

청소년
연차 대회 학습 노트를 가지고
연차 대회를
준비한다.

어린이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본다.
연차 대회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도 들어
있다.
그리고 **정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9월호 온라인 전용 기사

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리아 바턴

확실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지 않고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관련된 경험.

어질러진 우리 집에서 영을 느낄 수 있을까?

한 청년 성인이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여러분은 아직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데이비드 딕슨

내가 완벽주의를 극복한 방법.

결점이 있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은 한 청년 성인이 희망을 찾는다.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 및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 이번 호와 지난 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고취하는 이야기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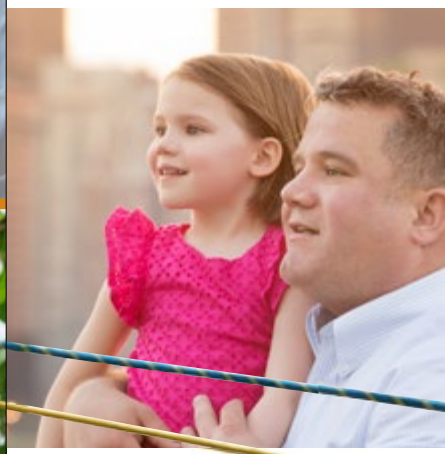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2019년 9월호 제56권, 제9호
리아호나 18609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밸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게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펑크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쉐런 유뱅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처,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스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올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원: 카밀라 카스트리욘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젠슨, 에런 존스턴,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셀루, 로리 풀러 소사,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렉산드라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소피아 스파나우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어데어, 줄리 버뎃,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닐슨, 데렉 리처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42호, 제56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9 Vol. 43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ChurchofJesusChrist.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자녀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회**복력 혹은 탄력성(resilience)이란 말은 원래 어떤 물체가 휘어지고 늘려지거나 압축된 후 그 이전의 모양이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힘과 관련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시련을 겪은 후 다시 재기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회복 탄력성 이란 말을 쓴다. …

자녀들이 회복 탄력성을 계발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 상상, 지식,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얻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일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라일 제이 버럽, 「자녀를 회복 탄력성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리아호나』, 2013년 3월호, 11쪽, 번역 수정)



여러분이 바라는 행동과 행위를 자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 준다.

자녀의 노력을 **칭찬**한다.

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칙**에 관해 토론하고 타당한 결론을 낸다.

성공을 노력과 희생의 산물로 **정의**한다.

실패를 일시적이며 배움을 얻는 하나의 기회로서 **정의**한다.

이 주제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번 호 12쪽에 있는 린 지 로빈스 장로의 「회복 탄력성: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영적 갑옷」을 살펴본다.

삽화: 나무 막대 그림 출처가 불분명한 수년 전 버버를 들고 있는 소녀, 러셀 컴 니니 페인 사진 원형 사진 제공: GETALIFE WVAGES: 교회 로고 인쇄 기는

Premier

데비 콜

아일랜드 렌스터

데비는 열아홉 살이었던 1989년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데비(딸과 함께한 모습)는 그 사건으로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신앙에 의지하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자원 봉사를 하고, 성범죄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펼쳤다.

레슬리 닐슨, 사진작가

똑같은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성폭력이 남기는 정신적인 외상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그 사건은 뇌리에 박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가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감, 그리고 안전이 박탈당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날들이 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신성한 유산을 받았다. 나는 이를 통해 삶이 힘들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다.

또한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희망과 목표를 잃지 않는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좋아한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3쪽)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나는 힘들 때 해야 하는 일들을 본보기로 보여 주신 그분을 바라본다.

더 알아보기

더 많은 사진을 비롯해 데비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음 자료실이나 **ChurchofJesusChrist.org/go/9196**에서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을 참조한다.

ChurchofJesusChrist.org/go/9197에서 닐 엘 앤더슨 장로는 구주가 지니신 치유의 권능에 관해 간증한다.

성역의 원리

성역을 행할 때 영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또한 도울 것인가?)

성역을 행하도록 신권 임무 지명을 받은 남성과 여성은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행하고 봉사와 사랑을 베풀라는 요청은 때로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특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 때는 더 그렇다. 성역을 행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보니 그중 어떤 것이 나에게 지명된 사람을 돕는 데 가장 좋을지 고심하게 된다.

그러나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다. 성실히 노력한다면 성신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성역의 임무로 인해 여러분은 영감을 받을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1]

구주와 같은 봉사를 실천하려 노력할 때, 우리 역시 그분을 인도했던 동일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감독이 신권 열쇠의 권세로 지명한 성역과 같은 임무를 행할 때 그렇다. 다음은 영을 동반하여 성역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6가지 제안 사항이다.

영을 동반하여 성역을 행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인도를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류하기를 바라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셨]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을"[2] 받게 된다. 코든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3]

2

영의 속삭임을 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열심히 노력"한다.(교리와 성약 58:27)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인도받고 영화롭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봉사하고 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대부분의 계시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바를 주님이 말해 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4]

행하라는 권유

매일 성역을 베풀려고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속삭임을 구하고 그에 응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역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역을 행한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역을 받았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그림: GETTY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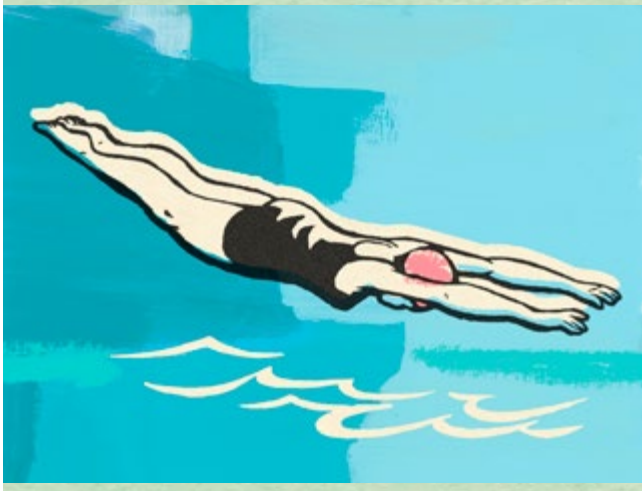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성역을 행하라는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을까?

3

몰몬의 조언을 따른다. 어떤 생각이 영의 속삭임인지 아닌지 조바심을 치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몰몬이 가르쳐 준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남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돕도록 이끌어 준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모로나이서 7:16 참조)

4

걱정하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바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십시오. 배영으로 가야 할지 개헤엄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키고, 신권 열쇠를 지닌 지도자들과 발맞추며,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5]



「그가 여러 다양한 병을 치유하시니」, 그림의 일부, 제이 커크 리처즈

구주의 모범

구주께서는 성역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사도행전 10:38)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자주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누가복음 4:1)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분명히 선한 일을 하셨지만, 성신을 받고 영감을 얻을 권리를 받는 것은 그분의 성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치 우리의 성역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5

즉시 행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아내인) 수전 베드나 자매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훌륭한 모범이다. 베드나 장로는 수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한 후 회중을 둘러보며 종종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방문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한 영감을 받으면 베드나 자매는 즉시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많은 경우, 폐회 기도의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어떤 청소년과 이야기하거나 어떤 자매를 포옹하거나, 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6]

6

용감하게 행한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또는 상대방을 귀찮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역을 행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시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성역을 베풀려는 충실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이들 및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감을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7]
한 형제는 자살 시도를 한 어느 여성의 남편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남편에게 점심을 함께하자는 말을 건넸다. "제가 '아내 분이 자살을 시도하셨다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네요.'라고 말하자, 그는 마구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울 만큼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았습니다."[8] ■

주

1. 보니 에이치 코든, 「목자가 됨」,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6쪽.
2. 경전 안내서, 「기도」.
3. 보니 에이치 코든, 「목자가 됨」, 76쪽.
4. 댈린 에이치 옥스,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리아호나』, 2013년 8월호, 24쪽.
5. 제프리 알 홀런드, 「화해의 성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7쪽.
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17쪽.
7. 게릿 더블유 공, 「우리 신앙의 모닥불」,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42쪽.
8. 보니 에이치 코든, 「목자가 됨」, 76쪽.

더 알아보기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고 싶은가?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리아호나』, 2018년 5월호)를 참조한다.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복 탄력성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영적 갑옷

우리 자녀들은 현대의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히더라도 잘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그 도전들에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델리와 그 주변 지역에는 독성이 강한 코브라가 아주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죽은 코브라를 가져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허술한 포상금 정책은 영악한 주민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포상금 정책을 중단하자 사육자들이 코브라를 풀어 주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처럼 의도한 이득보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부릅니다.[1]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타나는 코브라 효과

제가 2017년 가을에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학교의 신임 총장인 헨리 제이 아이어링은 신입생들의 중퇴율이 높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대학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회복 탄력성의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회복 탄력성은 "불행이나 변화에서 쉽게 회복하거나 그것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3] 신병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미 육군에서는 병역의 스트레스, 임무, 어려움에 대비하여 군인들을 강화하기 위해 회복 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4]

교회에서 조기 귀환하는 전임 선교사의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일부 선교사는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다른 어려움 때문에 조기에 귀환하지만, 다른 일부는 단지 회복 탄력성이라는 자질을 충분히 계발하지 못해 조기 귀환합니다.

교회 선교부에서 정신 건강 상담사로 일했던 라일 제이 버럽은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정서적

사진: GETTY IMAGES

강력한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청소년들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회복 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단지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5]

대학교, 군대, 그리고 선교부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장소일 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실제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즉 현대의 코브라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합니다.

- 소파 위에서, 그리고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전 세대만큼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6]
- 왜곡된 자아상,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가상 세계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7]
- 구글 검색처럼 만족과 해답을 즉시 얻을 수 있는 세계를 갈망한다. (그와는 반대로 회복 탄력성은 인내심을 통해 크게 발전한다.)
- 거친 바다로부터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선원이 나오지 않는다."[8]
- 세상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무수히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그리고 안락한 삶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은 영과 관련된 것에 둔감해지게 된다.
- 사람을 대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시간은 많아지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

이 복잡하고 만만찮은 어려움을 다루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i세대: 광대역 유무선 통신망이 구축된 오늘날 아이들이 덜 반항적이고 더 관대하면서도 덜 행복하게 자라 성인이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오늘날의 여러 도전에 맞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영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영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의 책임은 회복 탄력성, 신앙, 인내를 키우도록 격려하여 두려움 없이 그 도전들을 마주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복음 원리의 도움 속에서 청소년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이 "지혜와[지적으로] 키가[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과[영적으로] 사람에게[사회적 및 정서적으로] 더욱 사랑스러워"져(누가복음 2:52) 더욱 주님처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 자립, (2)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 (3) 성신의 은사, (4) 도덕적 선택의지 등의 네 가지 복음 원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립하는 자녀로 키우기: 산타클로스냐 스크루지냐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자선을 베풀고 자립을 장려하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원칙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립을 장려하지 않으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산타클로스입니다. 반면 불친절하게 자립만 장려하는 것은 스크루지입니다.[9]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적절하지

자선(물고기를 주는 것)과 자립(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육아에도 적용됩니다.

않습니다.

자선(물고기를 주는 것)과 자립(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육아에도 적용됩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의사 결정을 하는 기술을 가르쳐 그들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감동적인 영화 『미라클 워커』에 영감을 주는 예가 나옵니다. 헬렌 켈러는 유아기 때 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10] 헬렌의 부모는 딸을 키우는 일에 산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헬렌의 주변을 맴돌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방임함으로써 오히려 그녀의 지적, 영적, 사회적 및 정서적 성장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헬렌의 가정 교사였던 앤 설리번은 그녀가 응석받이로 자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에 직접 맞서며 더 자립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헬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헬렌의 부모가 아니라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 앞에 놓인 모든 걸림돌을 치워 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실패와 실망을 줄여 주기 위해 헬렌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자식을 위해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자 하는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자녀가 강하고 독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계발하지 못하도록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과보호하며 그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 주기보다는 구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모사이야서 24:15) 그리고 종종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우리를 구하러 오시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121:1~3 참조)

2. 반대되는 것: 힘든 경험이 주는 축복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장차 올 행복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고 정련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다음 성구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1:4)
- 역경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2:7)
-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고(니파이후서 2:11),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우리가 "쓴 것을 맛보게 되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십니다.(모세서 6:55)
-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우리는]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이더서 12:6)

그 길은 종종 가파르고 험난하여 우리는 모두 비틀거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신앙, 인내, 부지런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나 "고난의 풀무"(이사야 48:10) 없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힘든 일도 하게 하십니다. 구주께서 지금처럼 되시는 데 필요했던 시련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대한 모범이 되신 그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교 임지에서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근면 심화 과정, 인내 심화 과정과 같은 고급 과정에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고급 과정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법과 나중에 좋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든 날이 오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고통을 기뻐하십시오. 그들은 투옥되고 매 맞았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사도행전 5:18, 40~41 참조; 또한 베드로전서 4:13; 골로새서 2:8 참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곧고 좁은 길을 계속 가게 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노력과 인내를

부모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통해 계발됩니다. 그 길은 종종 가파르고 험난하여 우리는 모두 비틀거리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회개를 통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11]

3. 성신과 영감 받은 의사 결정

자녀들은 쉽게 답을 얻기보다는 먼저 의사 결정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필멸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신의 은사입니다.[12]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자녀를 자립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이 위대한 은사를 받기에 합당해지는 방법과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리버 카우드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는 기도로 간구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교리와 성약 9:7~8 참조)

가령, 자녀가 와서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숙제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침을 주고, 그런 다음 주님께서 올리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가서 해 봐. 숙제를 마치고 돌아오면 네가 푼 답이 맞는지 볼게."

자녀에게 시련에 맞서 이기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성신의 속삭임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면서 상식과 지혜를 키우며 "그것을 연구"하는 능력과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영적 자립과 회복 탄력성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13]

4.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지를 존중함

넬슨 회장님은 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어느 일요일에 회장님의 여덟 살짜리 딸은 아버지에게 와서 와드의 어떤 가족과 함께 썰매를 타러 가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대답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는 부분을 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딸에게 안식일에 썰매를 타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갈래요.'라고

자녀가 와서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숙제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말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딸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가 딸의 집에 있을 때, 딸의 어린 아들이 아주 비슷한 요청을 하면서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딸이 손자와 함께 성경을 펴서 똑같은 그 구절을 읽는 것을 보니 흥미로우면서도 흐뭇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고 아들을 깨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들이 "오늘은 교회에 안 갈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그런 순간에 "안 돼. 가야 해."라고 말하고는 아이를 야단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더 지혜로웠으며 그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한테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 대신 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만 한단다."

그런 다음, 그 아버지는 선택의 갈림길에 아들을 성신과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은사를 신뢰하면, 성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우리의 자녀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양심만큼 무서운 증인도, 강력한 고발자도 없습니다."[14] 몇 분 안에 그 십 대 아들은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 가도록 강요했다면, 코브라 효과를 일으킬 분노와 반항의 씨앗을 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선택의지를 존중하며 그들을 선택의 갈림길에 남겨 놓는 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결과적으로 그분의 영의 자녀 중 삼 분의 일을 잃으시면서까지 전세에서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에서 선택의지에 관한 교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루시퍼가 반대했지만 그 위험은 불가피했습니다.

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을 조금 수정할 수 있다면 자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를 다스릴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칩니다.[15] 우리의 자녀가 집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소망은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해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영의 속삭임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장차 시련을 마주할 때 영적 자립심과 회복 탄력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 준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깊이, 그리고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압박감을 받으셨을 때에도 당신이 마주해야 할 시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신의 은사와 영적 자립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 줍니다.

성신의 은사와 영적 자립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길러 줍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은 인내의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 영생을 얻[습니다.]"(니파이후서 31:20)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인 면에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필수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더 많은 실질적인 제언은 라일 제이 버럼, 「자녀를 회복 탄력성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리아호나』, 2013년 3월호를 참조한다.

주

1. 문제의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효과"라는 말은 독일의 경제학자 호르스트 시에베르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See Connie Matthiessen, "Why Are So Many College Students Returning Home?" Jan. 9, 2019, greatschools.org.
3.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meekness," merriam-webster.com.
4. See "Master Resilience Training (MRT) in the U.S. Army: PowerPoint & Interview," Positive Psychology Program, positivepsychologyprogram.com.
5. 라일 제이 버럼, 「자녀를 회복 탄력성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리아호나』, 2013년 3월호, 11쪽.
6. See Meena Azzollini, "Declining Physical Activity Levels in Children and Teens," WellBeing, July 10, 2017, wellbeing.com.au.
7. See Rachel Ehmke, "How Using Social Media Affects Teenagers," Child Mind Institute, June 6, 2016, childmind.org.
8. 아프리카 속담.
9. 스크루지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구두쇠로 나오는 인물이다.
10. See Helen Keller, The Story of My Life (1902).
11. 린 지 로빈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21~23쪽 참조.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49쪽 참조.
13.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14. 종종 폴리비우스나 소포클레스가 한 말로 추측한다.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84쪽 참조.

우리의 진로를 바꾼 수업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크리스 루비오와 알프레다 루비오 부부는 자립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길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다.

최근에 크리스와 알프레다 부부는 화물차가 고장났지만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이 부유해서가 아니었다.

"필요한 돈이 수중에 있었어요. 저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크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일에 바로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정이 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긁거나 수리비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교회 자립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개인 재정에 관한 강좌를 듣기 전의 일일 뿐이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익사하기 직전이었어요"

크리스와 알프레다는 독일에서 미국 공군부대에 복무하던 중 만났고, 둘은 덴마크에서 결혼했다. 크리스는 2008년에 제대했으며, 알프레다도 건강 문제로 몇 년 뒤에 은퇴했다. 그들은 미국 앨라배마에 정착한 뒤 곧 교회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크리스는 "구하는 일자리마다 저는 자격 과잉이거나 자격 미달이었어요."라고 말한다.

알프레다는 사무용품점에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알프레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익사하기 직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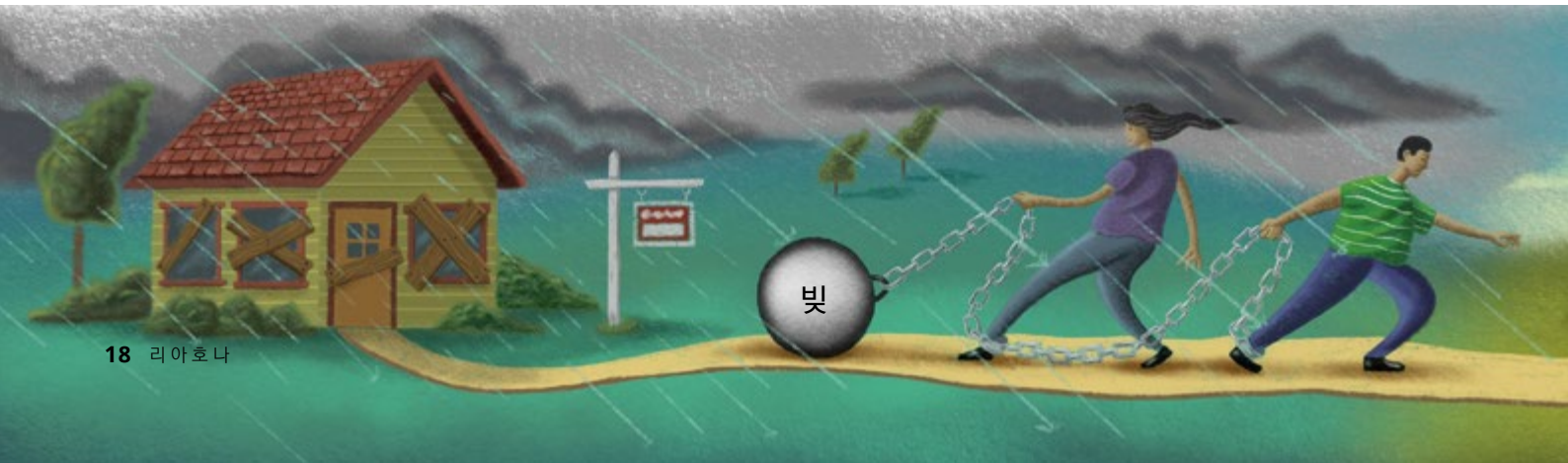
크리스도 "빚이 많았고 연체금 청구서도 쌓여 있었죠. 빚 독촉 전화도 계속 왔어요." 라고 덧붙였다. "청구서 대금을 갚기 위해 가재도구를 팔 지경이 되었어요. 돈을 못 내서 차도 회수되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집을 잃은 후, 루비오 부부는 새로운 와드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부부는 재정적으로 약해지는 만큼 교회 참석 면에서도 시들해졌다. 크리스는 그들이 재정 문제에 더 집중할수록 신앙에 대한 집중도가 더 흐트러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땐 '일자리를 구해야 하니까, 청구서가 걱정되니까, 주유비가 없으니까 오늘은 교회에 갈 수 없어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들은 새로운 감독과 함께 자신들의 재정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감독은 이 부부에게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외곽에 있는 그들의 와드 집회소에서 곧 시작될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 과정'을 소개했다.

크리스는 "우리는 둘 다 그다지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린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저축에 관해 실제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돈이 며칠 만에 다 떨어지고 그 상태로 오랜 기간을 버틸 때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과정을 들어 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 보자.'"

"이 수업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개인 재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루비오 부부는 다른 세 가족과 함께 예산을 짜고 지키는 법을 배웠다. 부부는 부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익혔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적인 자립에서 십일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없었던 저축까지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배웠죠. 솔직히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아이디어,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했는데, 루비오 부부는 개인 재정 과정의 이런 평의회와 같은 성격을 특히 좋아했다. 참가자들의 동지애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려는 그들의 노력과 신앙에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진행자는 우연히 크리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이 됩니다." 크리스는 말한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생계를 꾸려 나가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술력을 키워 자립하려 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되니까요."

"놀라운 여정"

그렇게 배운 재정 원리를 실천하면서 부부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거나 돈 걱정을 아예 놓게 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재정적인 걱정을 뒤로한 채 부름을 수행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 과정으로 확실히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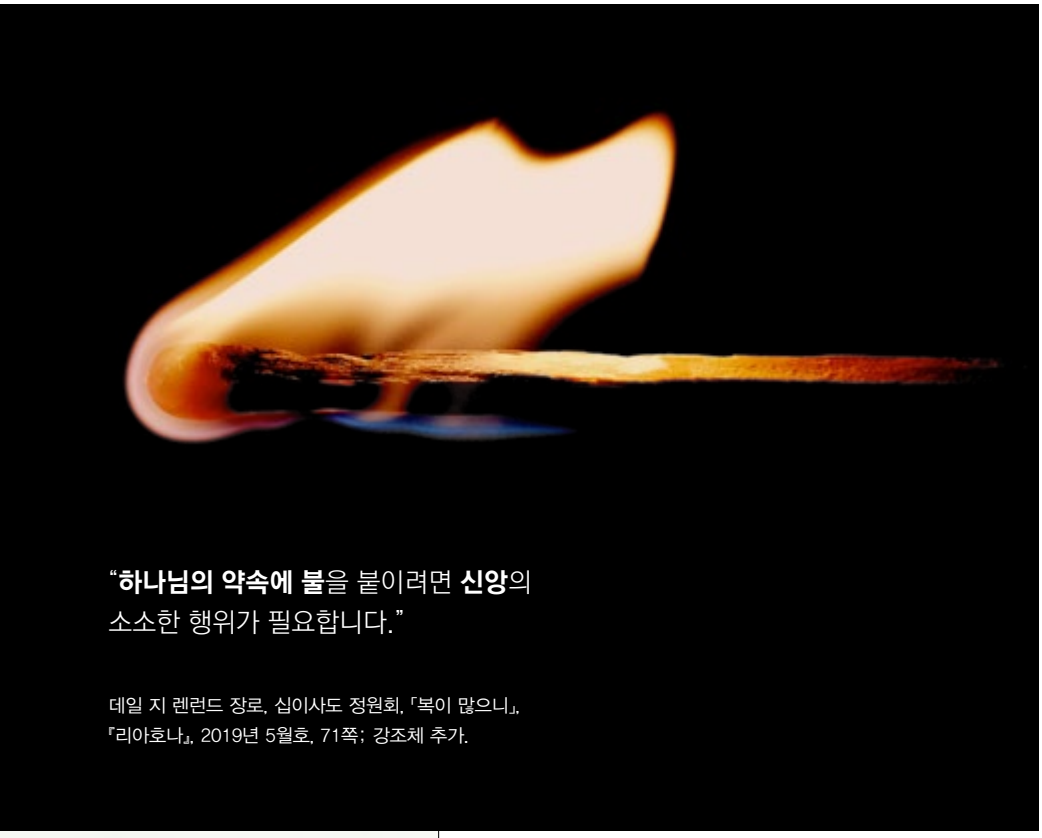
알프레다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경전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 나오는 재정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는 이런 원리들이 안경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이 과정은 마치 안경처럼, 크리스와 알프레다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길을 제대로 찾고 그 길에 머무는 데 힘이 되었다.

"그 수업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모든 내용을 배우지 못했다면,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같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크리스는 말한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

페인트공인 크리스 루비오가 아내 알프레다와 함께 일하러 가고 있다.

삽화: 데이비드 그린



"**하나님의 약속에 불**을 붙이려면 **신앙**의 소소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이 많으니」,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71쪽; 강조체 추가.

8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여덟 개의 새로운 성전을 다음 지역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62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인 성전은 47곳이다.

칠레 안토파가스타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국 워싱턴주 모세스레이크
통가 네이아푸
일본 오키나와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미국 유타주 투엘레밸리

다시 빛을 찾으십시오

쉐런 유뱅크 자매는 "여러분 간증의 빛이 희미해지고 …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질]" 때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했다.

1. 용기를 내십시오.
2.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십시오.
3. 여러분의 질문을 여쭤보십시오.
4. 인내를 가지고 돌을 유리로 녹여내십시오.
5.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 어둠에 비치는 빛」,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75쪽 참조.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안식처

많은 지도자들은 특별히 가정에 중심을 두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해 말씀했다. 여러분은 다음 내용에 관해 더 배울 수 있다.

- 가정에 영을 더욱 자주 불러옴(헨리 비 아이어링,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22쪽 참조)
- 여러분의 가정을 궁극적인 선교사 훈련원, 가족 역사 센터 및 성전 준비반으로 만듦(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모든 필요한 것을 얻도록 준비되어」,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01쪽 참조)
- 교과 과정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가 더 깊이 개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도움(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영성과 보호의 요새를 지으십시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07쪽 참조)

배경 사진 및 삽화: GETTY IMAGES

가정의 밤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활용함

나는 가정의 밤 공과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활용해야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처음에 나는 이 느낌을 떨쳐 버리려 했다. 우리 자녀는 어렸고, 연차 대회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웠다. 게다가 어린이에게 친숙한 주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시도는 해 봐야 함을 깨달았다.

가정의 밤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활용하자 가정의 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다른 경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복음 토론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시끌벅적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기적적인 기쁨의 순간을 맛보았다.

제시 크리스턴슨, 미국 유타주

연차 대회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facebook.com/liahona로 보낼 수 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

"우리는 모든 회원의 **가정이 참으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신앙의 안식처**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연구와 기도와 신앙이 사랑과 어우러진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11쪽; 강조체 추가.

먼 거리를 오고 간 이 세탁물 주머니는 우리 가족의 선교 사업과 관련된 전통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이 전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이 깃든 세탁물 주머니

우리 가족은 후기 성도가 되겠다는 내 결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뜻을 알리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다들 의아해했다. 부모님은 내 열정을 이해해 주려 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몸담았던 종교를 '저버리는' 내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어하셨다.

내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장 봉투에는 챙겨와야 할 물품 목록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목록 중에 세탁물 주머니가 적혀 있는 것을 보셨다. 그것만큼은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바로 두꺼운 파란색 데님 천을 사서 사랑을 담아 모양은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세탁물 주머니를 손바느질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할 선물이 될 것이었다.

나는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그 이후에 온두라스로 갈 때에도 그 세탁물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그것은 내가 이곳저곳의 작은 마을들을 옮겨 다닐 때마다 나와 함께했고, 마음에 꼭 들게 길이 드는 청바지처럼 짙은 파란색에서 은은한 파랑으로 조금씩 색이 바래 갔다. 선교 사업을 마치면서, 나는 갖고 있던 옷 대부분을 내가 사랑하게 된 한 특별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 세탁물 주머니만은 남겨 두었다. 어머니가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도 오직 나만을 위해 만들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우리 큰아들이 캘리포니아 칼즈배드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아들의 부름장 봉투에도 필요한 물품 점검표가 동봉되어 있었다. 우리는 점검표를 함께 읽었다. 그리고 그중에 '세탁물 주머니'가 나오자 나는 어머니께서 날 위해 만들어 주셨던 그 주머니를 다시 꺼냈다. 주머니는 예전에 내가 쓸 때보다 색이 더 많이 바랜 상태였지만, 아들은 그것을 들고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몇 년 후에 우리 딸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아이도 그 세탁물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딸은 귀환할 때 그 주머니를 가져왔는데 좀 더 낡기는 했지만 어디가 터지거나 한 곳은 없었다.

그 주머니는 선교 사업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처럼 타인에게 사랑을 보이며 배운 교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그 세탁물 주머니는 우리 가족의 선교 사업과 관련된 전통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이 전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

브라이언 시 헤커트, 미국 유타주

삽화: 존 카치

엘리베이터 사마리아인

언젠가 우리 와드에 다니는 한 가족이 두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을 한 후 그 일과 관련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나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었다. 물론, 내가 직접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온 탓에 나는 엘리베이터 문을 힘껏 두드리며 도움을 청해야 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도 드렸다. 이윽고 청년 여럿이 내 소리를 듣고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구조센터에 신고를 해 주었다. 그런 후 청년들은 자기들은 아파트 38호에 살고 있다며 구조가 되면 답례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도 된다고 농담을 건넸다.

청년들은 그러고 곧 자리를 떴고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구조요원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더 간절히 기도했다. 곧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었는데,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사람들은 내 부탁을 들어 주었고, 덕분에 나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제 남편이 알았으니 나를 꺼내 주기 위해 무언가 손을 쓰겠지.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앉아서 한 시간가량을 기다렸다. 마침내 정비사가 와서 나를 그곳에서 꺼내 주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걸려 있어서 수직 통로를 기어 올라 수리를 해야 했다고 했다. 나는 도와주어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날 늦게, 나는 38호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했다. 손수 만든 음식도 가져다주었다. 그들은 음식 이야기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나는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다. 이 경험을 되돌아보니, 우리 와드에 다니는 그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이 이제는 이해가 간다. 그리고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

모르고 그랬을 테지만, 그들은 구주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지나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육체 및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따라서 나도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예기치 않게 주님과 그분이 주신 축복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해 준 이 경험이 나는 감사하다. ■

카테리나 타일티나, 우크라이나 키예프

휴대폰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 나는 문을 힘껏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다. 주님께 기도도 드렸다.

삽화: 애나 고레아시

위기에서 우정으로

어느 일요일,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던 도중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느낌을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모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내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폐회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느낌은 계속되었다. 예배당을 둘러보는데, 가슴을 움켜쥐는 한 남자분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 형제님은 자신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기차역이 아니라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으나 그는 집에 있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하셨다. 나는 그러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무래도 그런 상태로 기차를 타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았다.

형제님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는 병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았지만, 그분은 괜찮으니 그냥 집으로 가달라고만 하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분이 호전되도록, 그리고 내가 댁까지 안전히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도움을 간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고 창문을 열어 두었으며 형제님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형제님은 좌석에 기댄 채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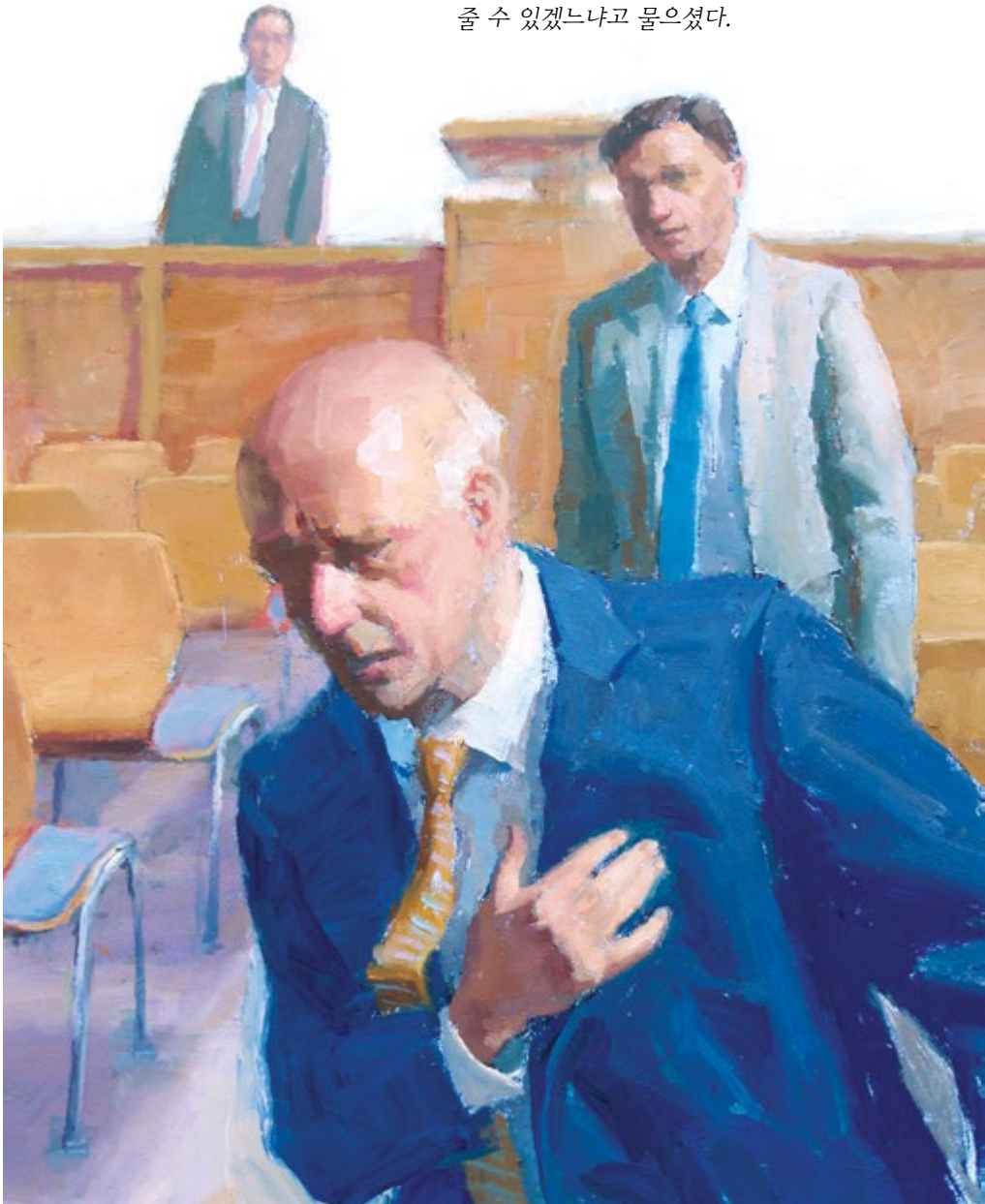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내게 잠시 들어오라고 권하셨다. 나는 형제님이 약을 먹고 괜찮아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형제님은 약을 먹은 뒤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가슴에 약간의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집이라서 안심이 된다고도 하셨다.

형제님은 내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셨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야외로 나들이도 가고 하면서 서로를 돕는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내 주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분과 우정을 쌓으면서 내 삶은 축복을 받았다.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깊은 우정이 싹틀 수 있다. 만일 그냥 기차역까지만 모셔다 드렸다면 형제님이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나는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성신이 나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준 것과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롤프 슈바이처, 스위스 장크트갈렌

예배당을 둘러보는데, 가슴을 움켜쥐는 한 남자분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 형제님은 자신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삽화: 앨런 간스

삽화: 캐롤린 비버트

가족 역사의 감미로운 선율

나는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딸네집에 갔다가 마운틴 덜시머라는 애팔래치아 지방의 옛 악기를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손주 몇 명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덜시머는 단순한 멜로디를 배워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였다. 휴대와 보관이 쉬운 이 현악기가 있다면 가족들과 모닥불 주변이나 집에 둘러앉아 함께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딸과 함께 덜시머 제작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 보았다. 그러다 시골길 옆 작은 오두막에 사는 한 노인을 찾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마운틴 덜시머 제작자인 데다 내 마음에 꼭 드는 덜시머도 갖고 계셨다.

나는 그 후로 몇 년에 걸쳐 덜시머 연주법을 배웠고, 손주 여럿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었다. 손주들 모두에게 덜시머를 하나씩 주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지만, 덜시머 17개를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덜시머 제작법을 직접 배우기로 결정했다.

제작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나는 이 미국 고유 악기의 역사를 조사해 보았다. 그러던 중 덜시머와 유사한 샤이트홀트라는 악기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1700년대에 독일인 또는 스칸디나비아인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이민자들도 샤이트홀트를 연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샤이트홀트를 개량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후에 마운틴 덜시머가 되었다. 나는 또한 덜시머라는 이름이 "감미로운 선율"을 뜻하는 라틴어 dolce melos[돌체 멜로스]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참 후에 가족 역사 이야기를 조사하던 중 주로 독일계였던 내 어머니의 조상과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이었던 아버지의 조상 중 일부가 마운틴 덜시머를 연주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는가? 수 세대가 흐른 후에 내가 그 악기를 알게 되고 손주들에게 연주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다.

나와 나의 조상과 후손을 잇는 이 얼마나 멋진 음악적 연결 고리인가!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마운틴 덜시머의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 그들과 연결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 가족 역사 사업에 감사함을 느낀다. ■

게리 맥콜리스터, 미국 콜로라도주

마운틴 덜시머는 나와 나의 조상과 후손을 잇는 멋진 음악적 연결 고리이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사도의 서한

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여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글이나 서한을 통해 고대 성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부에 자신의 사랑과 지시, 가르침을 그런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기에, 저의 사랑과 감사와 가르침을 담은 이 서한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고린도전서 1:1)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한에 적었던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으며,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분을 살리셨음을 간증합니다.(갈라디아서 1:1, 4 참조) 또한,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복음의 충만함 및 영원한 성약과 관련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저는 바울이 했던 이 말로 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린도전서 1:2~3)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라는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게 해 줄 몇 가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영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나무 이미지: GETTY IMAGES; "사도 바울"의 일부, 제프 워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라디아서 1:6~8)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이들이 있음을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제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지 않는다면 제가 맡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교리와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개인은 결국 거짓 교사와 자칭 선지자라 선언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가지 힘

형제 자매 여러분, 우주에는 두 가지 힘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며 슬픔과 후회를 맛보게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삶이란 시험이며, 우리가 어떤 권유를 받아들일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과 관련된 예수님의 예언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태복음 24:24) 예수님의 경고처럼 "택함 받은" 일부 사람들이 미혹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최근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작은 숲에 들렀습니다. 그 숲은 오래전에 세쿼이아 나무를 심어 조성된 곳입니다. 제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세쿼이아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종으로, 야생에서 87미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수명은 3천 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숲에 있는 나무 중 한 그루가 죽어 결국 베어 내야 했습니다. 옆을 지나가는 이에게 한때는 크고 장엄했던 나무가 서 있었음을 떠올리게 해 줄 그루터기만 남겨 둔 채로 말입니다. 캠퍼스의 수목 관리자는 어떤 이유로 그 나무가 죽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쿼이아 나무가 그렇게 일찍 죽는 일은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한 끝에 그는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가 수분 부족으로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던 나무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수목 관리자는 숲 바로 동쪽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 작은 숲에 물을 대던 지하수층의 흐름이 의도치 않게 바뀌어 버린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신앙 면에서 당당하고 강해 보이는 "택함 받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죽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완벽한 비유로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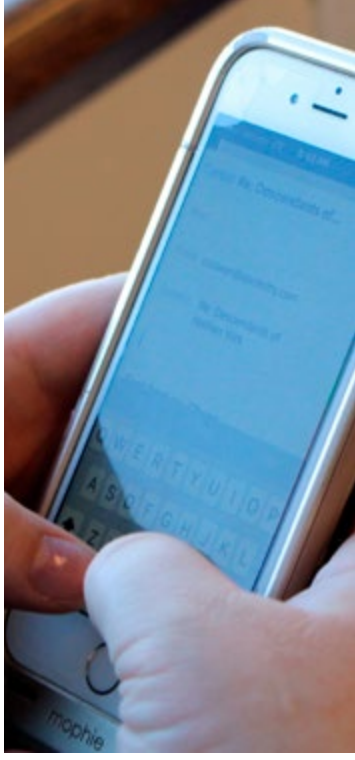
죽은 세쿼이아 나무처럼, 이들 교회 회원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생수의 샘에서 영적인 양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영적 양분의 근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분이 없어지자 그들의 영은 빛을 잃었고 결국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뿌리가 생수의 샘과 항상 연결되어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필수적인 습관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두며 그분과 연결되는 단순하고도 개인적인 습관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마음의 뜻을 다하고 진정한 의도로써 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습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림 없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 필수적인 습관은 바쁜 일상에서 쉽게 놓쳐 버릴 수 있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쁜 일상이란 교육을 추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지역 사회와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필수적인 습관에는 매일 하는 진실한 기도, 충실한 금식,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상고하는 것,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 겸손하게 성찬을 취하고 항상 구주를 기억하는 것,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돕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필수적인 일을 그만둔다면, 생수의 샘에서 스스로를 단절하고 사탄이 그의 속임수로 오염시킨 물에 자신의 생각을 더럽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염된 물은 충실함의 핏줄을 막아 버리고 가짜 영양분으로 영을 쇠진시킵니다. 죄와 죄책감은 마음에 먹구름을 드리웁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가 이전의 영감과 계시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교리와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개인은 결국 거짓 교사와 자칭 선지자라 선언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교란하는 음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만심으로 가득 찬 부의 유혹.
- 필요 이상의 욕구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적인 부채.
- 복음의 건전한 미덕을 저해할 수 있는 오락과 유흥.
-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활동.
- 주님의 관점을 적절하고 정직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적인 정직함이 결여되어 의문과 의혹을 야기하는 팟캐스트와 인터넷 사이트.

다른 이들이 답을 찾도록 돕는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역사, 교리, 관행에 관해 질문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회복은 조셉 스미스가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보조 조직 지도자, 교회 교사들(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 포함), 감독, 스테이크 회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질문이나 걱정거리를 들고 왔을 때, 그 질문을 가볍게 취급하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디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치는 그 사람의 헌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대신, 그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 교리, 또는 관행에 관해 솔직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베드로전서 3:15)

우리는 솔직한 질문에 더 잘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주에 관한 질문이나 우리의 역사, 교리, 관행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지한 사람들에게 많은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른다면, 함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찾음으로써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면, 신앙이 종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고 연구하여 알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믿고 신뢰하며 소망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역사와 교리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알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부모, 지도자, 교사들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도 배경과 교육 경험이 매우 다른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토론하고 심의할 때 폭넓은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으면 대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의지합니다. 훈련받은 학자들과 평생을 연구에 헌신한 분들 덕분에

신용카드 사진: GETTY IMAGES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경전을 잘 아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사려 깊은 남성과 여성들이 전후 사정과 배경 지식을 알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스러운 과거사와 현재의 관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려 준 지식의 축복 덕분에 저는 성신의 인도를 받도록 더욱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의 권고를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뿌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4:14)

교회는 투명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고 풍부한 맥락을 알게 해 주는 귀중한 자료를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의 기록들] 웹사이트와 ChurchofJesusChrist.org의 복음 주제 관련 글을 통해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와 교리를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풍부한 자료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는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십시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일부 회원들이 이웃에 뒤지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미 땅에서 번성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을 재물이 많은 이들과 비교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소비로 빚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이미 받은 축복에 만족하며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일조를 내지 못 하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후하게 내십시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활동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이상의 활동을 계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도록 부탁합니다. 가끔은 소셜 미디어와 다른 방해물을 끄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제가 최근 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가족 평의회를 하십시오. (「가족 평의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3~65쪽 참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시편 46:10; 또한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가족의 마음을 빼앗아 가장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도록 누군가는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앱이나 게임은 젊은이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나 심지어 그들이 만나고 데이트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보게 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다음으로 교회 회원이 아닌 우리의 친구, 이웃, 학교 및 직장 동료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위대한 의무와 책무, 곧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말씀을(마태복음 28:19)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대로

믿거나 믿지 않을 선택의지가 있음을 존중합니다.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가 복음을 배우는 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정의 손을 계속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진실해야 하며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와 지도자의 모범을 통해 가장 잘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 하는 말과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19:19)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응당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한 이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독교인다운 공손함과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대업에서 손을 맞잡고 일하며, 그들이 우리 친구나 동료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합시다. 우리의 예배 모임과 와드 활동에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시다.

평강과 선지자의 권고

선지자의 권고를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뿌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요한복음 4:14)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간증을 전하며 사도로서 보내는 제 서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세쿼이아 나무처럼 영적인 면에서 사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부르신 종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삶에서 더 많은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열국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획으로 다시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전에 계시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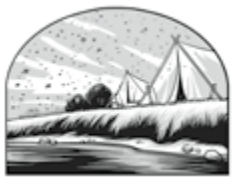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경시할 때 틀림없이 임하게 될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청하는 것은 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길 빕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시고, 필요할 때 회개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부터 회개하고 변화할 용기를 얻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봉사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준비하는 필멸의 삶을 여러분이 안전히 계속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참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으로 저의 서한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구주와 구속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과 왕으로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

2016년 9월 11일, 연합 스테이크 대회에서 전한 "An Epistle to the Saints of the Utah Salt Lake Area"에서 발췌함.



제 3 장

주의 말씀과 뜻

편집자 주: 다음은 『성도들』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의 제3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1846년 가을, 브리검 영 회장을 비롯한 2,500여 명의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강 서편에 마련한 후기 성도 임시 정착지인 윈터쿼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윈터쿼터스에 고통이 덮친 그때, 아직 나부에 남아 있던 성도들의 자그마한 공동체가 1천 명 규모의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전갈이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성도들 200여 명이 공격에 맞섰으나 며칠 만에 패했다고 했다. 나부시의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가난하고 병이 든 이 성도들이 평화롭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폭도들은 도시를 떠나는 성도들을 공격하여 괴롭히고 그들의 집과 우마차를 약탈했다. 폭도들은 성전을 점령하여 내부를 더럽혔으며 강 건너 진영들로 달아나는 성도들에게 조롱을 퍼부었다.[28]

이 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게 된 브리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서부로 오고자 하는 모든 성도를 돕겠다고 나부에서 성약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지금 미시시피강 서편 둑에 우리의 궁핍한 형제 자매들, 과부와 고아들, 병들고 헐벗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러분 가슴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29]

윈터쿼터스 및 이웃 정착지의 성도들은 2주 전에 우마차 20대 분량의 구호물자를 나부로 보내서 남은 식량이나 물자가 거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우마차와 여러 팀의 황소, 식량 그리고 그 밖의 물자를 나부로 실어 보냈다. 교회의 감리 감독인 뉴얼 휘트니는 또한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 밀을 사들였다.[30]

구조 부대가 난민들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추위를 견딜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극한의 굶주림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10월 9일, 성도들이 미주리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듯 날아와 우마차들을 온통 에워싸고 내려앉았다. 소년들과 남성들은 급히 쫓아다니며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았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지금처럼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던 일을 떠올렸다.

교회의 서기인 토머스 불럭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와

『윈터쿼터스, 1846~1848년』, 그레그 케이 올슨

선하심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져 내렸던 그것이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녁으로 먹을 메추라기를 얻었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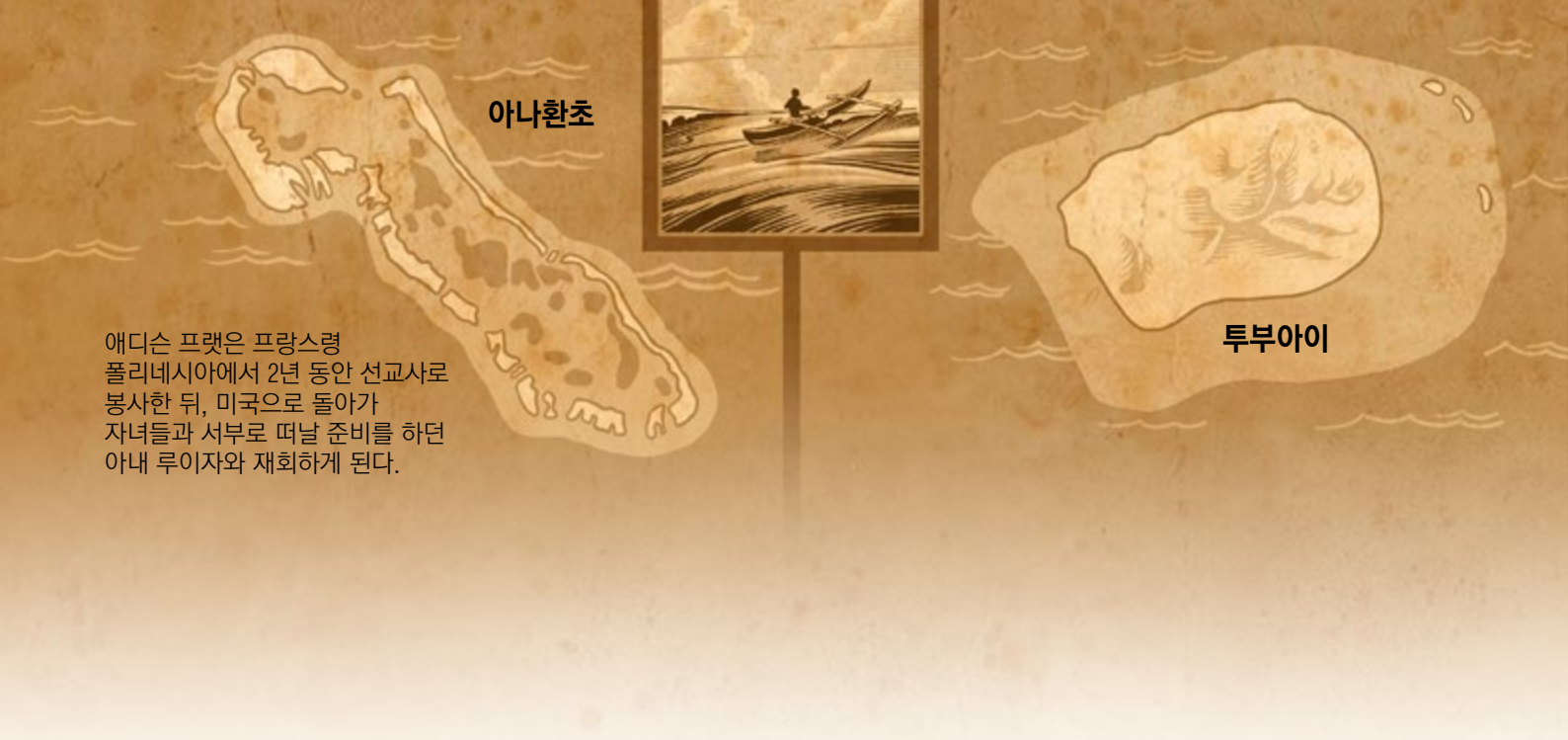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제도의 아나환초에서는 타마네후네라는 이름의 아론 신권 소유자가 8백 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이 모인 대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미국의 교회로 편지를 써서 적어도 다섯 명, 많게는 백 명의 장로들을 당장 이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자 마을의 지도자인 아리파에아가 이 의견을 재청했고, 남태평양 성도들도 손을 들어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32]

대회를 감리하던 애디슨 프랫은 타마네후네의 의견을 진심으로 지지했다. 지난 3년간 애디슨과 벤자민 그루아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십이사도에게서 받은 편지는 단 한 통에 불과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관한 어떠한 지시 사항도 들어 있지 않았다.[33]

그 편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건만 두 선교사는 가족과 친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섬에 신문이 들어오면 성도들의 소식을 찾으려고 지면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다 어느 신문에서 그들은 나부 성도의 절반이 학살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는 강제로 캘리포니아까지 내쫓겼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34]

루이자와 딸들의 행방을 알고 싶어 애가 탄 애디슨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계속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편이 낫다."[35]

애디슨의 친구로, 아나환초에서 그와 함께 봉사했던 나보타와 텔리 부부도 투부아이로 돌아가기로 했다. 텔리는 투부아이



애디슨 프랫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서부로 떠날 준비를 하던 아내 루이자와 재회하게 된다.

교회의 동료 여성들 사이에서 영적인 교사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벤자민은 선교부를 이끌기 위해 섬에 남을 계획이었다.[36]

애디슨이 곧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평양의 성도들은 더 많은 선교사를 데리고 속히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애디슨은 만일 루이자와 딸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섬으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기에 주저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37]

윈터쿼터스의 날씨는 더 얼어붙고 있었고, 브리검은 로키산맥을 넘기 위해 어떻게 교회를 준비시킬 수 있을지 알고자 주님께 자주 기도했다. 여정을 시작하고 거의 일 년을 보낸 끝에 그는 앞에 놓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조직하고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또 생기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또한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조셉이 살아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교회를 이끌 수 있으셨다.

새해가 시작된 직후, 브리검은 주님께서 새로운 빛과 지식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열어 주시는 것을 느꼈다. 1847년 1월 14일 목요일에 고등평의회 및 십이사도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그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여정에 관한 더 많은 지시 사항을 그에게 주셨다. 그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시를 꺼내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지시 사항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39]

이튿날, 그는 그 계시를 십이사도에게 보여 주었다. "주의 말씀과 뜻"으로 명명된 이 계시는 성도들을 여러 부대로 편제하고 사도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자급하는 한편 서로 협력하여 일하고 과부와 고아, 몰몬 대대 용사들의 가족들을 돌볼 것을 명하셨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이렇게 지시하셨다. "모든 사람은 주께서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하실 곳으로 이 백성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재산을 사용할지어다. … 만일 너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다하여 이 일을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으리니."[40]

주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서로 친절히 대하고 술에 취하거나 험담하기를 그치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성약으로서 주신 말씀에서, "모든 의식을 지켜 행하"며 나부 성전에서 맺은 약속을 엄수하도록 성도들에게 지시하셨다.[41]

"[나는] 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 마지막 날에 나의 팔이 뻗어 있느니라."

그분은 성도들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당신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견디라고 명하셨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야 하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42]

사도들은 남은 겨울 동안 계속해서 계시를 구하는 한편, 로키산맥 너머로 우마차 부대들을 보낼 준비를 해 나갔다. 봄이 되면 그들의 지휘하에 소규모 선발대가 윈터쿼터스를 떠나 로키산맥을 넘어가서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집합 장소를 세울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주로 가족들로 이루어진 더 큰 규모의 부대들도 이 여행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곧 그 뒤를 따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48]

나부를 떠나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와 오십인 평의회가 정착지로 고려한 장소는 솔트레이크밸리 또는 북쪽의 베어리버밸리였다. 로키산맥 너머에 있는 이 두 골짜기는 모두 전도유망한 곳으로 묘사되는 곳이었다.[49] 브리검은 시현에서 성도들이 정착할 지점을 보기는 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만 알았다. 그는 여전히 교회가 집합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자신과 선발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다.[50]

1847년 4월 16일 금요일 오후,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 선발대가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 사도들은 윈터쿼터스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작별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나아온 마음이 정직한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려 합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력을 다해 모든 것을 이겨 낼 것입니다."[53] ■

제3장 전문을 읽으려면, saints.ChurchofJesusChrist.org를 방문하거나 복음 자료실 앱 또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기사의 디지털 버전을 읽는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다.

주

28. James Whitehead to Brigham Young, Aug. 18,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George Alley to Joseph Alley, Jan. 26, 1847, George Alley, Letters, CHL; Mace, Autobiography, 138–45; "Articles of Accommodation Treaty Agreement," Sept. 16, 1846, Chicago Historical Society, Collection of Manuscripts about Mormons, CHL; Bullock, Journal, Sept. 1846;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Sept. 18, 1846; Leonard, Nauvoo, 606–16.
29.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6, Sept. 24 and 27, 1846, 49, 51; Brigham Young to "the High Council at Council Point," Sept. 27,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30.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6, Sept. 14, 1846, 34; Sept. 27, 1846, 52; Oct. 5, 1846, 7–8; Oct. 6, 1846, 11.
31. Bullock, Journal, Oct. 9, 1846;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6, Oct. 5 and 9, 1846, 7–8, 14–15.
32. Society Islands Conference Report, Sept. 24, 1846, in Historian's Office, Minutes and Reports (local units), CHL; Addison Pratt, Journal, Feb. 3, 1846; Sept. 24, 1846; Nov. 1850. 애디슨은 1850년 11월 자신의 일지에서 대회의 날짜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33. Addison Pratt, Journal, Mar. 5, 1846; Apr. 17, 1846; Nov. 14, 1846; Woodruff, Journal, Nov. 26, 1844.
34. Grouard, Journal, 145; see also Addison Pratt, Journal, Feb. 6, 1847.
35. Addison Pratt, Journal, Nov. 7, 1846.
36. Addison Pratt, Journal, Mar. 13 and 17, 1846; Nov. 14 and 17, 1846; Jan. 9, 1847; Addison Pratt to "My Dear Family," Jan. 6, 1846, Addison Pratt Family Collection, CHL; Grouard, Journal, 165–66.
37. Grouard, Journal, 172; Addison Pratt, Journal, Nov. 1850; Addison Pratt to "My Dear Family," Jan. 6, 1846, Addison Pratt Family Collection, CHL; see also Addison Pratt, Journal, Jan. 13, 1847.
39.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7, Jan. 14, 1847, 18–19; Willard Richards, Journal, Jan. 14, 1847; see also Bennett, Mormons at the Missouri, 148–57. **주제:** 브리검 영
40. 교리와 성약 136:1~11(Revelation, Jan. 14, 1847, Revelations Collection, CHL);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7, Jan. 15, 1847, 19.
41. 교리와 성약 136:4, 8, 19, 23~27, 32(Revelation, Jan. 14, 1847, Revelations Collection, CHL).
42. 교리와 성약 136:17, 21~22, 28~31(Revelation, Jan. 14, 1847, Revelations Collection, CHL); 또한 출애굽기 2:23~25; 4:31; 6:6~7; 15:1 참조.
48. Woodruff, Journal, Sept. 4, 1847;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7, Mar. 6 and 21, 1847, 65–66, 72; Lee, Journal, Feb. 15 and 27, 1847; Council of the Twelve Apostles to "the Brethren at Winter Quarters," Apr. 16, 1847,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또한 교리와 성약 136편(Revelation, Jan. 14, 1847, Revelations Collection, CHL) 참조.
49. Council of Fifty, "Record," Sept. 9, 1845, and Jan. 11, 1846, in JSP, CFM:472, 513.
50. Lee, Journal, Jan. 13, 1846, 79; George A. Smith, in Journal of Discourses, June 20, 1869, 13:85; Council of the Twelve Apostles to "the Brethren at Winter Quarters," Apr. 16, 1846,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Norton, Reminiscence and Journal, July 28, 1847; Erastus Snow, in Journal of Discourses, Sept. 14, 1873, 16:207; see also Thomas Bullock to Henrietta Rushton Bullock, June 9, 1847, Henrietta R. Bullock Collection, CHL.
53. Woodruff, Journal, Apr. 14–16, 1847; Clayton, Diary, Apr. 16, 1847; Council of the Twelve Apostles to "the Brethren at Winter Quarters," Apr. 16, 1847,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L.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늘의 인도를 받고 인식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도 기꺼이 인도를 받고자 해야 하고, 또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에서 젊은 선교사였던 시절, 우리는 하루 동안 동반자와 함께 상파울루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듣도록 권유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돌아와서 간증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특정 거리로 가라거나 특정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경이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류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아마도 아직 부족하거나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담한 저는 선교사 훈련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은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특정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는 라디오나,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는 스마트폰처럼, 성신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받으려면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특정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는 라디오나,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는 스마트폰처럼, 성신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받으려면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생존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1]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2:61]"[2]

이 지상의 여정 동안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하기를]" 바라십니다.(교리와 성약 58:27) 하지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행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신께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주님의 방식

경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주시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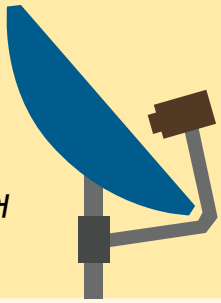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1:12) 때때로 영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잇따라 드는 생각,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자제하라는 느낌, 통찰이나 이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 잊어버린 일들을 기억하는 것 등을 통해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3]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우리는 성신이 종종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느낌과 감정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신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종종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어진 지침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는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고(모로나이서 7:13 참조), 살아 있는 선지자들 및 성스러운 경전이 전하는 가르침과 항상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받고 인식하는 일

어쩌면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마주하는 주요 과제의 하나는 성신의 속삭임과 인도를 받고 인식하며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교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훈 1: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기꺼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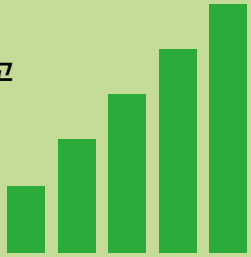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영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말해 주는 것 중 하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꺼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특권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4]

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때, 저는 주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저에게 보내려 하시는 것을 받으려면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방해나 간섭이 우리의 주의를 너무 산만하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갈망하며 우리의 삶에 그분을 초대하고, 단순한 영의 속삭임에 귀를 즉시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우리 역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며 성신의 속삭임에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5]

교훈 2: 우리는 영이 소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대체로 느낌으로 소통하십니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속삭여 주는 말씀으로 느끼게 됩니다. …

이 부드러운 느낌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도록, 무언가를 말하도록,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대답하도록 이끌어 줍니다."[6]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조금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처음에는 단어, 그다음에는 문장, 그다음에는 전체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의 언어를 배우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배우고자 열망한다.
-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계시를 받는지를 연구한다.
- 영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 하나님께 성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한다.
- 자신에게 온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 영의 속삭임에 순종한다.
- 인도를 더 받기 위해 진지하게 구한다.

교훈 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 교훈은 다음의 세 가지 원리를 포함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고, 또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그분은] 우리가 위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7]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모로나이서 7:48) 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 즉 하늘 본향으로 명예롭게 돌아가는 운명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8]

2. **때때로 우리는 하늘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예상치 못한 지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찬식 모임에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지시는 목소리나 속삭임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성찬식 중에 그런 지시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금 받은 영의 속삭임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의 속삭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시를 따르면서,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우리가 받은 지시를 통해 더 큰 평안을 얻었고 우리가 계속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여러 증거를 얻었습니다.

3.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하며 지혜로우시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다. 하늘의 관점에 기반을 둔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도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이런 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로 고통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우리 역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보다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과 계명을 지킬 때,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9]

하늘의 도움을 받는 일

우리의 영원한 진보는 성신으로부터 개인적인 인도를 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한 계시를 구하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 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런 다음 진지하게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2.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5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7~90쪽 참조.
4.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4쪽.
5. David A. Bednar, "Receiving,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the Promptings of the Holy Ghost" (Ricks College Devotional, Aug. 31, 1999).
6.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성령 인도하시어」,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4쪽.
7. 헨리 비 아이어링,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7쪽.
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3쪽.
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90쪽.

한 번에 한 걸음씩

온전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것을 불완전한 자신을 빗대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일을 그르치고 실수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후회는 종종 적절한 변화를 단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데 지나친 시간을 들인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도 있다. 44쪽에 나오는 기사에서 네이선은 온전함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통해 한 번에 조금씩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인식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발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42쪽에 나오는 조엘의 기사에서 구주의 속죄를 이해함으로써 그녀가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읽어 본다.

완벽주의로 인해 우리는 종종 특정한 일이나 복음의 특정 측면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 앰버는 청결 상태에 관해, 애런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 지나치게 걱정했다.(두 기사 모두 온라인 전용 기사임) 그러나 이 청년 성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굳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그러므로 …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계명의(마태복음 5:48) 실제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의 온라인 전용 기사를 읽고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몇 가지 단계를 배워 본다.

발전하려고 힘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얻고 고양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일 때도 있으므로(본인의 온라인 전용 기사 참조)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집중한다. 그분들은 우리의 신성한 가치를 아시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자.

진실한,
헤더 클래리지

최고의 조언 …

청년 성인들이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을 이야기한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조언해 줘요. '내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야.'라고요."
—파올라 바르가스,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

"완벽한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도록 약점을 주세요."
—매케나 클라크, 미국 버지니아주

"저는 교회에서 온전함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우리 구주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생에서 그분을 따르세요."
—베넬라 윈즐릿,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용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19년 9월 30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조엘 스피즈커맨은 웃는 것을 좋아하며, 종종 삶에 대한 희열이 넘친다. 그녀는 복음과 아이들, 음악을 사랑하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그녀의 목표 중 하나는 주변의 모든 이에게 빛을 나누는 것이다.

네이선 리드는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자랐다. 그는 경제 분석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주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와드에서 세미나리를 가르치며, 지역의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고 양서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헤더 화이트 클래리지는 베개 밑에 책을 쌓아두고 잠을 자던 아이였기에 자연스레 편집인이 되었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며,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다.(태권도와 스테인드글라스 등)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인데, 마른 낙엽을 밟으며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다.

앰버 웨스턴은 사랑스러운 네 자녀의 엄마로, 전업주부이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남편이며,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다이어리를 쓰는 일이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다이어리를 들고 가서 삶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그리고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순간들도) 모두 기록한다.

사진: GETTY IMAGES

이번 호 이야기

42 나는 완벽하지 않다 … 아직은
조엘 스피즈커맨

44 완벽주의: "다른 그림 찾기"라는 위험한 게임
네이선 리드

48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해짐

온라인 전용

우리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헤더 화이트 클래리지

어질러진 우리 집에서 영을 느낄 수 있을까?
앰버 웨스턴

결점이 있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애런 윌리엄스

여러분은 아직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데이비드 딕슨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나는 완벽하지 않다 … 아직은

조엘 스피즈커맨

완벽주의로 고생했던 나의 경험이 구주의 속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3니파이 12장 4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평생을 완벽주의로 고생해 왔기 때문에 이 경전 구절을 읽을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완벽주의는 매우 해로울 수 있다. 오랫동안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심지어는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일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그랬다. 또 나는 자주 패배감에 시달렸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에는 무도회 춤을 배우고, 음악 수업을 듣고,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재능을 발전시키고 완벽해지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했다. 나는 내가 패배자라고 느꼈다. 실패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였다.

완벽주의로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든 간에 이 지상에서는 그 누구도 전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노력이 그처럼 헛되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한 가지 해답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종국에는 온전하라."[1]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 과하게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삶에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수많은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온전함을 추구하다 자기 자신이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해내려다 몸과 마음을 방전시키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편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번역할 수 있도록 네게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달음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라."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온전함은 "완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온전함(perfect)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pericere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per-**("완전하게")와 **facere**("하다")를 합친 것이다. 따라서 온전함이란 "완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전해질 수 없다.(모로나이서 10:30 참조) 우리 중 많은 이가 자주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 앨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앨마서 26:12)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언젠가 그분처럼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리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모로나이서 10:32)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구주의 속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완벽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하며, 그 과업을 완수할 방법을 혼자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려 애쓴다면, 우리의 약점은 강점으로 변화될 것이다. 마치 완벽주의와 벌이는 나의 싸움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약점, 죄, 시련,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조할 방법을 아신다. 우리가 모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기를, 또한 우리가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구주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

글쓴이는 네덜란드에 산다.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도 종국에는 온전하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0쪽.

완벽주의

"다른 그림 찾기"라는 위험한 게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만 한다.

삽화: 켈시 게리티 라일리

네이선 리드

어렸을 때 나는 지역 신문에 나오는 '다른 그림 찾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나란히 놓인 거의 똑같은 두 그림을 보고 그 둘 사이의 작은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게임이다. 그림을 구석구석 집중해서 살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차이점을 찾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이 게임의 목표는 그림을 감상하거나 두 번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놀이의 진짜 목표는 첫 번째 그림의 불완전한 복사본에 들어 있는 모든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 청년 성인들이 겪게 되는 익숙한 어려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고 꿈꾸는 기준에 자기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갈수록 자신을 남과 더 자주 비교하게 된다. 멋진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 학업 성적이 완벽한 사람,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친절하고, 지혜롭고, 관대하고, 우아한 사람들을 보며 자신과 비교한다.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나이도 어릴 것이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사이에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고, 우리는 언제든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이유를 셀 수 없이 꼽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의 가치가 우리의 성취, 성품, 또는 세상의 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 경우라면 특히 더 위험하다. 게다가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은 우리가 살면서 발전시킨 강점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은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 또,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무시한다. 구주께서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선언하셨을 때(제3니파이 12:48), 나는 그분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 했다고 믿는다. 결국, 구주의 이런 권유는 회개하라는 요청이자 그분께서 요구하신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도전 과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성향을 극복하고 겸손, 회개, 신앙,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후에 온전함을 기대한다

대적이 조장하는 부정적인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단계 중 하나는 완벽주의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온전함을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온전함의 유래는 "완전[을 이룸]"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라고 설명하셨다.[1]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필멸의 삶에서는 "완전[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통해 완전함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온전하다는 개념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따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십일조를 바칠 때 우리는 십일조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약의 길로도 알려진) 온전에 이르는 여정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본인이 진보하고 있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가속화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의로움과 온전함은 같은 말이 아니다. 온전함은 결과지만, 의로움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신앙과 회개의 패턴을 말한다. 온전함이 목적지라면, 우리가 맺는 성약은 여권이고, 의로움은 그 여정에서 내딛는 발걸음이다. 온전함을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참을성 있게 의로운 패턴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또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실패를 예상하고 회개를 사랑한다

최근에 나는 칠십인의 린 지 로빈스 장로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숙고해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개라는 대체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2] 이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기간이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께 더 가까워지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준비시킨다. 우리는 자신이 아마도 매일 실패 또는 실수를 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식할 때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이지만, 우리가 걷는 길에는 회개,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전진하는 태도가 수반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1926~2004)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랜 기간을 줄기차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궁극에는 무엇이 되며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3] 매일 하는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구주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동기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반영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변화될 것이다.

장애물을 만나거나, 실수하거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 소망, 인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관한 해결책이나 해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은 이생에서 극복하게 될 것과 다음 생에서 극복하게 될 것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장애, 우울증 및 불안증, 또는 지속적인 유혹 등은 다음 생에서 극복할 것에 해당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실 권능이 있다. 구주는 우리를 변화시킬 권능이 있으시다. 겸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적극적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힘과 신성한 격려,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교만을 조심한다

대적은 절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발견할 때면, 그는 우리가 가능한 한 완벽해 보여야 하니 그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숨기라고 부추긴다. 이것은 교만의 한 형태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에 항상 좋은 해결책을 제공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해결책이 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복음을 나눌 때 그분을 신뢰하라고 권유하시는 반면, 사탄은 너는 말이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순간에" 주리라고 약속하신다.(교리와 성약 100:6) 참으로, 대적은 우리의 의심을 키우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신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나 '약점 숨기기'에 몰두하는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약점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다. 하지만 삶은 절대 경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이자 친구, 지지자로 선택할 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해로운 일을 그치고 완전을 향한 길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불완전함이라는 난관과 그와 관련된 약점을 경험한다.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힘이 되어 그들을 더 높이 북돋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이나 성공이 남들에 비해 나은지 부족한지 판단하려 하는 데서 이득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록 남들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보신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무한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분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의로운 노력을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며, 우리를 구해서 다시 하늘 집으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계신다. 우리는 구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불완전함으로 정의된 이 삶에서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자 모범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여 판단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온전함을 향해 계속되는 여정에서 우리가 항해해 나아갈 때 순풍을 보내 주실 것이다. 모두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행하기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모로나이서 10:32) ■

글쓴이는 호주 태즈메이니아에 산다.

주

1.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6쪽.
2. 린 지 로빈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22쪽.
3. 닐 에이 맥스웰,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21쪽.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해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로나이서 10:32)

"온전함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온전함은 우리가 참고 기다려 온 목표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장해 두신 영원한 온전함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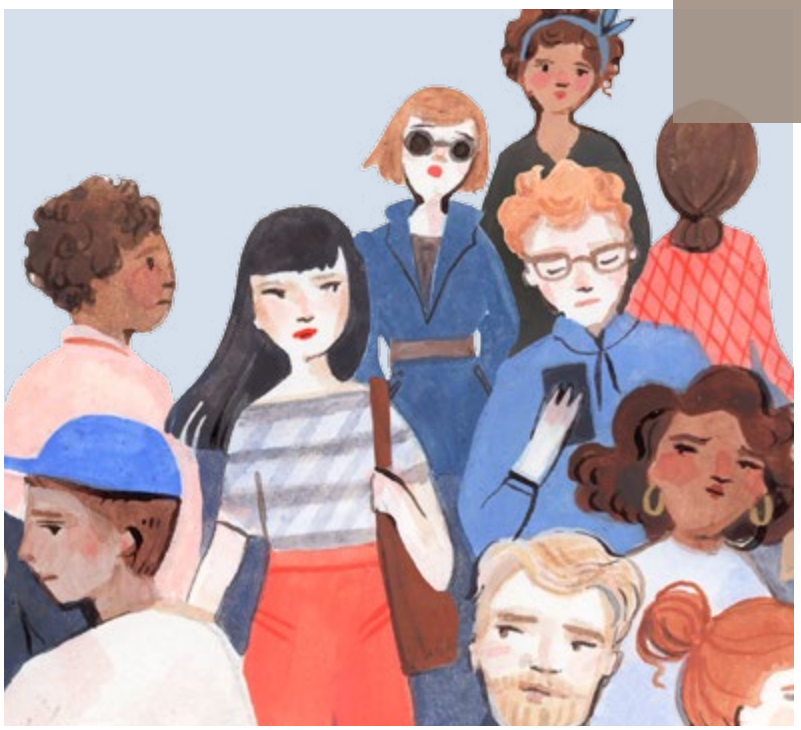
이탈리아 로마 성전방문자 센터 내부. 사진: 마시모 크리사오네

청년 성인

**온전함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기사들을 읽어 보라.*

40



청소년
연차 대회를
준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움을 얻기 위해
이번 호 연차 대회 노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어린이
연차 대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이를
해 보세요!

친10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02186 09320 1

2019년 9월호

『리아호나』 어린이 섹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친구들

러시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세요!

친6~9쪽에서요.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러셀 엠 넬슨
회장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방법 #1: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마태복음 22:37),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마태복음 22:39)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방법 #2: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마가복음 11:25)

방법 #3: 남들이 나에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 이것은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황금률 덕분에 우리는 왜 남들이 나에게 보여 주길 바라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딸은 각각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25:40 참조)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9~42쪽에서 인용함.

황금률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동전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나요?
동전을 찾으면 황금색이나 노란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금은 매우 귀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무척 귀중한 존재이지요! 사실,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이나 돈보다도 더 커요. 황금률을 실천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삽화: 알리사 피터슨

"그분은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Children's Songbook』, 14)

조의 여동생인 새라이아는 몸이 아팠어요. 기침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병이 아니었죠. 엄마와 아빠는 새라이아가 당뇨병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조는 당뇨병이 뭔지 몰랐지만, 왠지 이름부터 뭔가 무시무시한 병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엄마와 아빠께서 당뇨병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당뇨병은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당분을 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말이에요. 새라이아는 당뇨병에 걸린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며칠간 입원해야 했어요.

새라이아는 가끔 조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조의 친구들과 놀려고 했고, 조의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는 새라이아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새라이아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자 조는 눈물이 났어요.

새라이아가 병원에 갈 채비를 할 때, 다른 여동생들도 옆에서 새라이아를 도와주었어요. 메리는 새라이아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 한나는 짐에 잠옷을 챙겨 넣도록 도와주었죠. 릴리는 보송보송한 담요를 짐꾸러미에 넣어 주었어요. 조도 돕고 싶었지만

당뇨병이 사라지는 대신

엘리자 브로드벤트
실화에 근거함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무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새라이아는 곧 짐을 다 꾸렸어요.

"가기 전에 기도를 하자꾸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조, 네가 기도해 주겠니?"

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라이아가 당뇨병이 아니도록 축복해 주세요. 새라이아가 괜찮을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하자 조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가족들이 포옹하려고 모였을 때, 조에게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조는 자기 방으로 가서 생일 선물로 받았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를 들고 나왔어요. 조는 새라이아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이 플레이어에 들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거 받아." 조는 플레이어를 새라이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병원에 갈 때 이것도 가져가." 새라이아는 빙그레 웃으며 플레이어를 손에 꼭 쥐고 차로 걸어갔어요.

다음 날, 엄마는 조와 누나들을 데리고 새라이아를 보러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조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새라이아가 당뇨병이 아니게 해 주세요." 조는 이 기도를 거의 백 번도 넘게 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새라이아는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새라이아는 모두가 온 것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새라이아는 제1형 당뇨병이래. 이제 우린 함께 먹는 음식을 조금 바꾸고, 새라이아가 약을 잘 먹도록 도와주어야 해. 그럼 새라이아는 괜찮을 거야."

조는 울컥 화가 났어요. 조는 복도로 나와 문 옆에 웅크리고 앉아 두 팔 사이로 얼굴을 묻었어요.

"왜 그러니, 조?" 엄마가 조의 곁에 앉으며 물으셨어요.

"새라이아가 당뇨병이 아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엄마는 조를 감싸 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다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힘든 일을 없애 주시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라이아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알아."

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도, 강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 기도를 했을 때 좋은 느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는 엄마와 함께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새라이아와 누나들은 집에서처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새라이아를 포함한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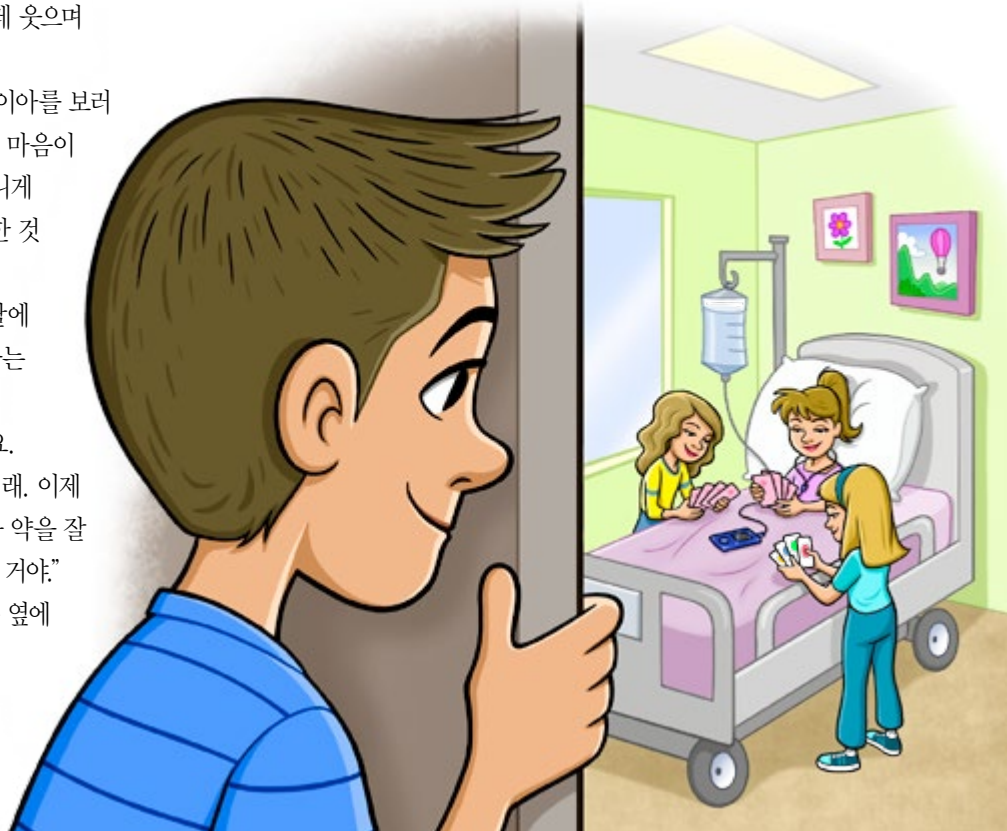
그때 조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새라이아의 목엔 이어폰이 걸려 있었고, 무릎에는 조의 음악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어요.

"새라이아는 네가 골라 준 음악을 계속 듣고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새라이아가 안정감을 느끼는 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되었지."

조는 가슴속이 따스해지는 걸 느꼈어요. 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가족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

여러분을 위한 질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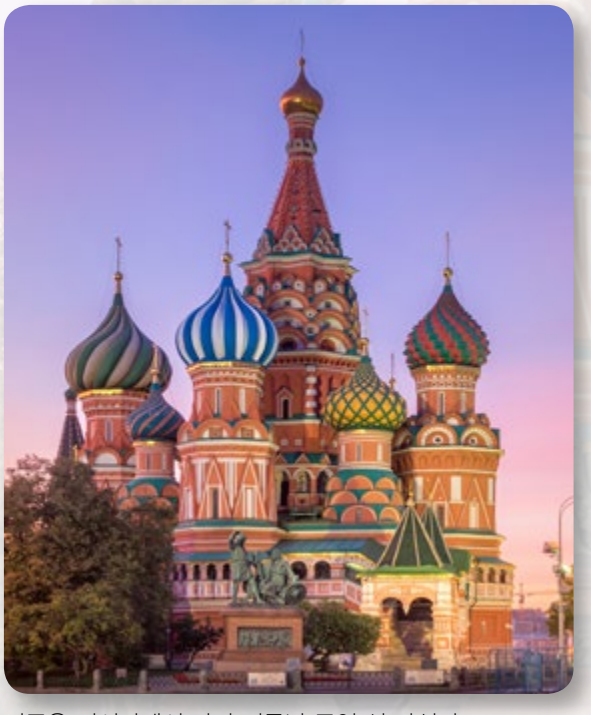


삽화: 제러드 벅스트랜드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러시아의 영토는 유럽과 아시아까지 두 개 대륙에 걸쳐져 있어요.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은 불곰이에요.

러시아에서 쓰는 글자는 키릴 문자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이듯이, 러시아의 집회소 밖에는 교회의 이름이, 러시아어 몰몬경에는 '몰몬경'이라는 말이 키릴 문자로 쓰여 있어요.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이름난 곳인 성 바실리 대성당이에요. 러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정교회에 다녀요. 러시아정교회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아티 맥디

러시아에서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은 '지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날 어린이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선생님께 꽃을 드려요.

수프는 러시아에서 무척 인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이 아이는 *시치(shchi)*라고 부르는 양배추 수프를 먹고 있어요.

작년에 넬슨 회장님이 러시아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발표하셨어요. 러시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 성전은 이 거대한 나라에 세워질 첫 번째 성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러시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경전을 읽는 것이 좋아요. 저는 성전이 너무 좋고, 그 안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에바, 8세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저도 그분을 사랑해요. 저는 학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초등회 노래를 불러 주는 걸 좋아해요.
이핌, 7세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러시아를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배경 디자인: GETTY IMAGES

개구리 공주의 용서

카트야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소냐가 카트야의 역할을 차지하려고 해요!

샬럿 라카발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누가복음 6:36)

카트야는 큰 상자를 들고서 아파트 건물 밖의 쏟아지는 햇빛 속으로 걸어들어갔어요. 카트야가 사는 러시아의 도시는 여름이면 이렇게 몇 달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어요. 카트야는 상자를 벤치에 내려놓았어요. 벤치에서는 친구 디마와 소냐가 카트야를 기다리고 있었죠.

"연극할 때 필요한 물건이 여기에 다 있어!" 카트야가 말했어요. 카트야는 상자를 열어서 플라스틱 왕관과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천을 꺼냈어요. 조금만 머리를 짜내면 이걸로 멋진 무대용 의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연극을 할 건데?" 디마가 물었어요.

카트야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개구리 공주'를 하자!" 그건 카트야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였어요. 카트야는 아름다운 바실리사 역할을 맡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씨익 웃었어요.

소냐는 상자에서 파란색 천을 꺼내어 걸쳐 보았어요. "바실리사는 내가 할래!" 소냐가 말했어요.

"잠깐만!" 카트야가 말했어요. "연극은 내가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실리사를 해야지."

"그래, 너도 할 수 있지." 소냐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내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개구리로 변한 바실리사 말이야!"

카트야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냐가 걸치고 있던 파란 천을 잡아 뺐어요. "하지만 이건 내 연극이란 말이야!"

소냐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그렇게 잘난 체를 하면 아무도 너랑 놀고 싶어 하지 않을걸. 넌 공주보단 개구리가 더 어울려."

카트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카트야는 상자를 집어들고 계단을 뛰어올라서 아파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카트야는 문을 쾅 닫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카트야는 엉엉 울었어요.

"소냐가 다 망쳤어요!" 카트야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걔가 저 보고 개구리랬어요!"

"아, 카츄샤." 카츄샤는 엄마가 카트야를 부르는 별명이에요. "저런. 소냐가 진짜 안 좋은 행동을 했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현관으로 나가실 때, 카트야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말소리가 들렸고, 카트야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냐와 이야기 좀 해 볼래? 소냐가 너에게 할 말이 있대."

"싫어요!" 카트야가 소리쳤어요.

다시 말소리가 들린 후,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냐가 미안해하는 것 같아."

엄마의 말씀에도 카트야는 "상관없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카트야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엄마는 얼마 동안 문 옆에 서 계셨어요. "너도 알겠지만, 엄마도 무진장 화날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구.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했어." 말씀을 마치신 후 엄마는 방을 나가셨어요.

카트야는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냐가 카트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 화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건 마찬가지였어요.

카트야는 한숨을 쉰 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트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소냐를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카트야의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카트야가 소냐를 용서하길 바라시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화내고 싶지도 않아요."

카트야는 기도를 마치고 깊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 화가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카트야는 할 수 있었어요. 카트야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카트야는 소냐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소냐는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카트야,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용서할게." 카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옷을 다 가져가 버려서 나도 미안해. 너도 멋진 바실리사가 될 거야. 우리 바실리사 역할은 번갈아가면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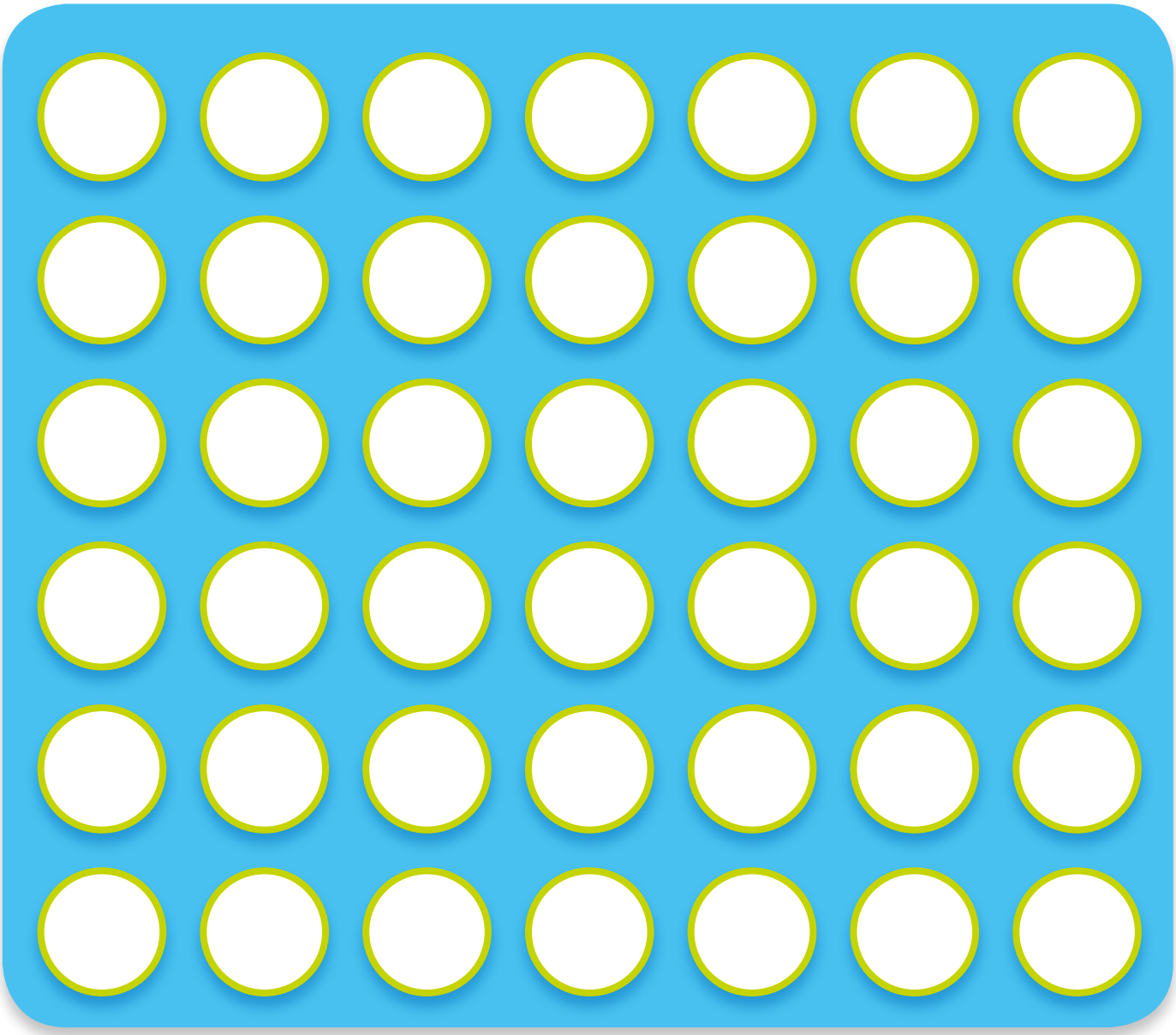
소냐는 밝게 웃었어요. "좋아. 지금 연습해 볼래? 내가 디마를 불러올게!"

카트야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옷을 가져올게!" ●

삽화: 아나 샤라포바

연차 대회 네 칸 채우기 게임!

연차 대회 때 누군가와 함께 이 놀이를 해 보세요. 먼저, 누가 ×를 쓸 것인지, 누가 ○를 쓸 것인지 정하세요. 그런 다음, 연차 대회에서 연사들이 말씀하실 때 아래 목록에 있는 단어들이 언제 나오는지 잘 들어 보세요. 아래의 단어 중 어떤 것이든 단어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고른 표시를(×나 ○ 중) 빈칸에 그려 넣으세요. 판의 맨 아래 칸에서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앞서 그린 표시 바로 위 칸에 연달아 그려요. 연속해서 네 칸을 완성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



어린이	가족	사랑	계시	선지자
계명	하나님	기도	경전	사도
신앙	예수님	신권	성전	

이제 곧 처음으로 성전 의식에 참석하게 될 텐데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콩닥거려요. 감독님은 저에게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실까요?
— 멕시코 아카풀코에 사는 근심이가

사랑하는 근심이에게,

근심이의 감독님, 혹은 지부 회장님은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혹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질문이 있으면 감독님께 여쭤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 접견할 때 부모님이 함께 들어가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심이를 사랑해요!
친구들

-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을 믿는 신앙이 있나요?**
- **(선지자, 사도, 감독님과 같은)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나요?**

- **자신의 생각과 몸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키나요?**
- **침례받을 때 맺었던 성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요?**
-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 **정직하게 생활하나요?**
-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있나요?**

만약 지금 당장 성전에 갈 계획이 없더라도, 청녀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론 신권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요. 성전 추천서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지혜의 말씀을 지키나요?**
- **자신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페 사진: GETTY IMAGES; 등전 삽화: 베스 앨 휘태커; 구주 및 침례 삽화: 맷 스미스;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 스티브 크랍

가족 역사,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FamilySearch.org에 들어가서 후미코 할머니를 우리의 가계도에 추가했어요. 할머니의 생일과 히로시 외고조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하신 날짜도 넣었어요.

후미코 할머니의 사진도 사이트에 올렸어요. 이제 사진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언제든 우리 가족은 인터넷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볼 수 있어요.

후미코 할머니는 살아 계실 때 침례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그 날 있었던 일을 일지에 기록했어요. 언젠가 저의 외고조할머니인 후미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후미코 할머니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후미코 할머니의 성함과 정보를 사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성전으로 갔고, 할머니를 위해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삽화: 진 매드슨

여러분도 가족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다고 해도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 ▶ 여러분의 생활을 사진이나 그림, 글로 여러분의 일지에 기록해 보세요.
- ▶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 ▶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FamilySearch.org에 사진을 올려 보세요.
- ▶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을 친11쪽에서 읽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세는 빨리 성전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성전에서 느끼는 평안

호세 로드리게스

실화에 근거함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 거야"(『어린이 노래책』, 99쪽)

"축하해, 호세." 가르시아 감독님은 새로 발급된 성전 추천서를 제게 주셨어요.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독님과 악수를 하고 감독실을 나온 후에 저는 그 하얀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저도 성전에 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복도에서는 abuelos(아부엘로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모님은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보통 Abuela(아부엘라, 할머니)와 Abuelo(아부엘로, 할아버지)와 교회에 갔거든요. 두 분은 저를 꼭 안아 주셨어요.

"다음 주에 처음으로 성전에 가는 거지? 어때, 기대되니?" 건물을 걸어 나오면서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그럼요!" 말씀드렸어요. 뱃속이 꿀렁거리는 것 같은 희한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시며 "가족과 함께 가면 정말 좋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함께 배시시 웃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성전에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계시던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하던 일을 멈추셨어요. "무슨 일이 있니?" 할머니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물으셨어요.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저는 한숨을 쉬며 탁자 앞에 앉았어요. "성전에 가는 게 정말 기대되는데, 사실 긴장도 돼요."

할머니는 제 기분을 이해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단다. 네가 모든 단계를 잘 거치도록 다른 분들이 도와줄 거니까."

할머니의 말씀을 듣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스한 느낌이 퍼지면서 마음에 위로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이윽고 성전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안식일 복장을 하고

여러분을 위한 질문

여러분은 왜 성전이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머리를 빗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기분은 좀 어떠니?"

"정말 기대돼요! 빨리 성전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침대 끝에 앉으시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건 성전 의식 카드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남동생을 위한 거지. 내겐 정말 특별한 동생이거든. 하지만 침례를 받기도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단다. 오늘 성전에 가서 이 할미의 동생을 위해 네가 침례를 받아 줄 수 있겠니?"

할머니는 제게 그 종이를 내미셨어요. 저는 거기에 적힌 이름을 읽어 보았어요. 라몬 로드리게스. 할머니께서 동생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동생의 침례를 부탁하실 만큼 저를 신뢰하신다는 사실에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산토도밍고 성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성전에 함께 가셨던 날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그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성전이 없어서 페루까지 가야만 했대요.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간 뒤에 우리는 성전에 도착했어요. 가르시아 감독님도 그곳에 계셨죠. 성전 건물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성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문 위에 적힌 글을 읽어 보았어요.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

성전 문에 들어설 때, 저는 제가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했죠.

저는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례반으로 들어가서 가르시아 감독님과 함께 섰어요. 저는 감독님이 침례 기도문을 낭송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감독님이 라몬이라는 이름을 읽으셨을 때, 평온한 느낌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가르시아 감독님은 저를 물속에 잠기게 하셨어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어서 또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

글쓴이는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지구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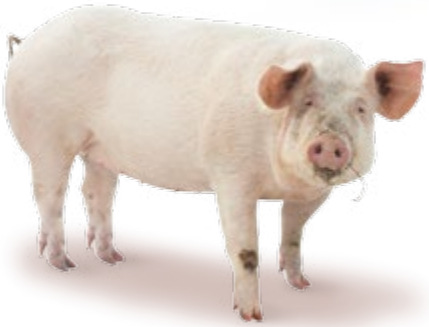
삽화: 마이크 로헤드

카보베르데로 간 래스번드 장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해요.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과 장로님의 부인인 멜러니 래스번드 자매님이 카보베르데를 방문하셨어요.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예요.

래스번드 장로님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어느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보살펴 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린이들은 래스번드 장로님과 악수를 하려고 줄을 섰어요. 래스번드 장로님은 이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으셨어요. 래스번드 장로님 부부도 손주가 27명이나 있으세요!



두 분은 농장에도 가셨어요. 이곳의 교회 회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돼지와 여러 종류의 가축을 키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래스번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무척 기뻤어요. 사도님이 카보베르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주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래스번드 장로님이 방문하셨던 어린이들의 학교를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 **십일조를 낼 때, 헌금 봉투 안에 여분의 돈을 조금 더 넣으세요.**
- **그렇게 넣은 돈의 액수를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 칸에 써 넣으세요.**
- **봉투 입구를 붙이고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께 드리세요.**
- **여러분이 낸 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이 네 어린이는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에 돈을 기부했어요. 도형을 따라 길을 가면서 어린이들이 낸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세요.

삽화: 마크 스타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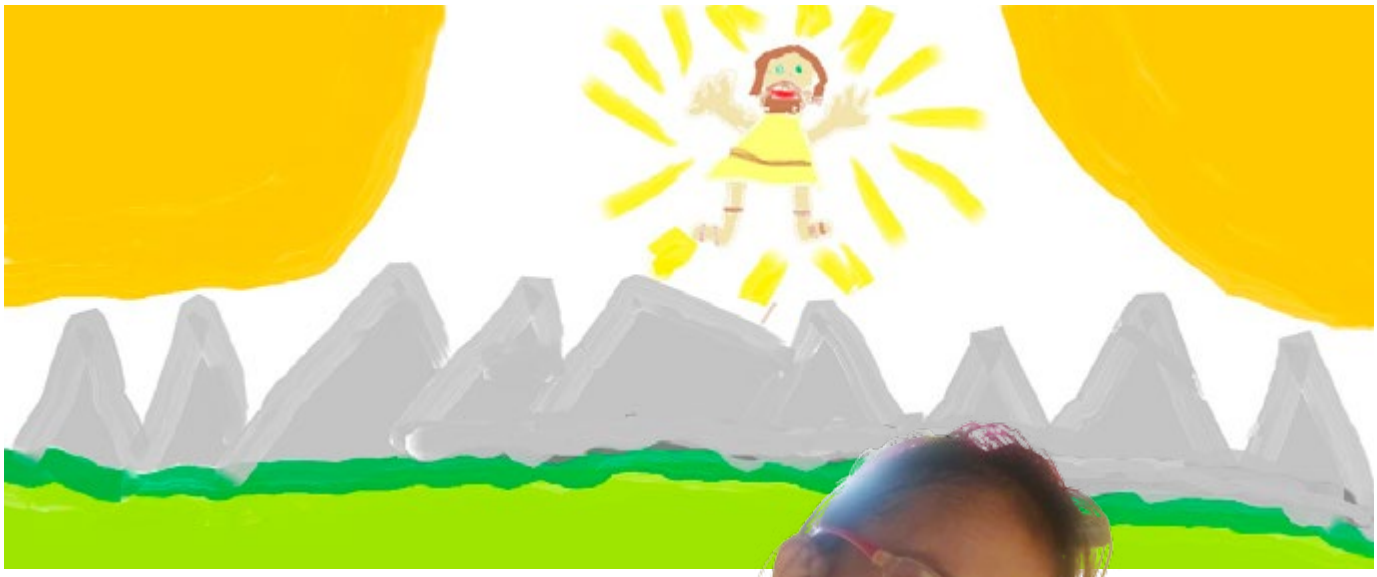
어린이 발표

저는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전에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난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끔 저는 수업 전이나 축구 시합 전에 기도를 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초등회에서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기도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키릴, 8세

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고 구속주세요.

마리아, 10세



테일러스 피, 9세, 미국 버지니아주

저는 매일 밤 몰몬경을 읽는 걸 좋아해요. 저는 늘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아론 피, 7세,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저는 제가 만든 작품을 반 친구들에게 나눠 줘요.

미라 엘, 6세, 필리핀 중부 루손

앨런 디 헤이니
장로
칠십인 정원회

면도와 실수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

아홉 살 때 저는 콧수염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면도를 하면 콧수염이 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면도기로 면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다 얼굴을 베일 수 있으니 면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는 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도를 하던 중 손가락에 묻은 비눗물 때문에 면도기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면도기에 입술을 깊이 베였습니다. 입술 상처를 붕대로 감쌀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신 후 제 상처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놀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셨습니다.

"저어, 인도에서 뛰다 엎어져서 길바닥에 얼굴을 찧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까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더니 이제는 정직하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었지만, 저는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면도기를 쓰다가 베인 거예요. 죄송해요."

잠시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온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한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건 좋은 일이 아니지.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교훈은, 그리고 실제로 제 입술에 남은 흉터는 그 이후로 매일 저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든, 아니면 친구, 가족들 앞에서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본보기가 되십시오. ●

삽화: 토머스 차일드

바울의 편지

머리사 위디슨
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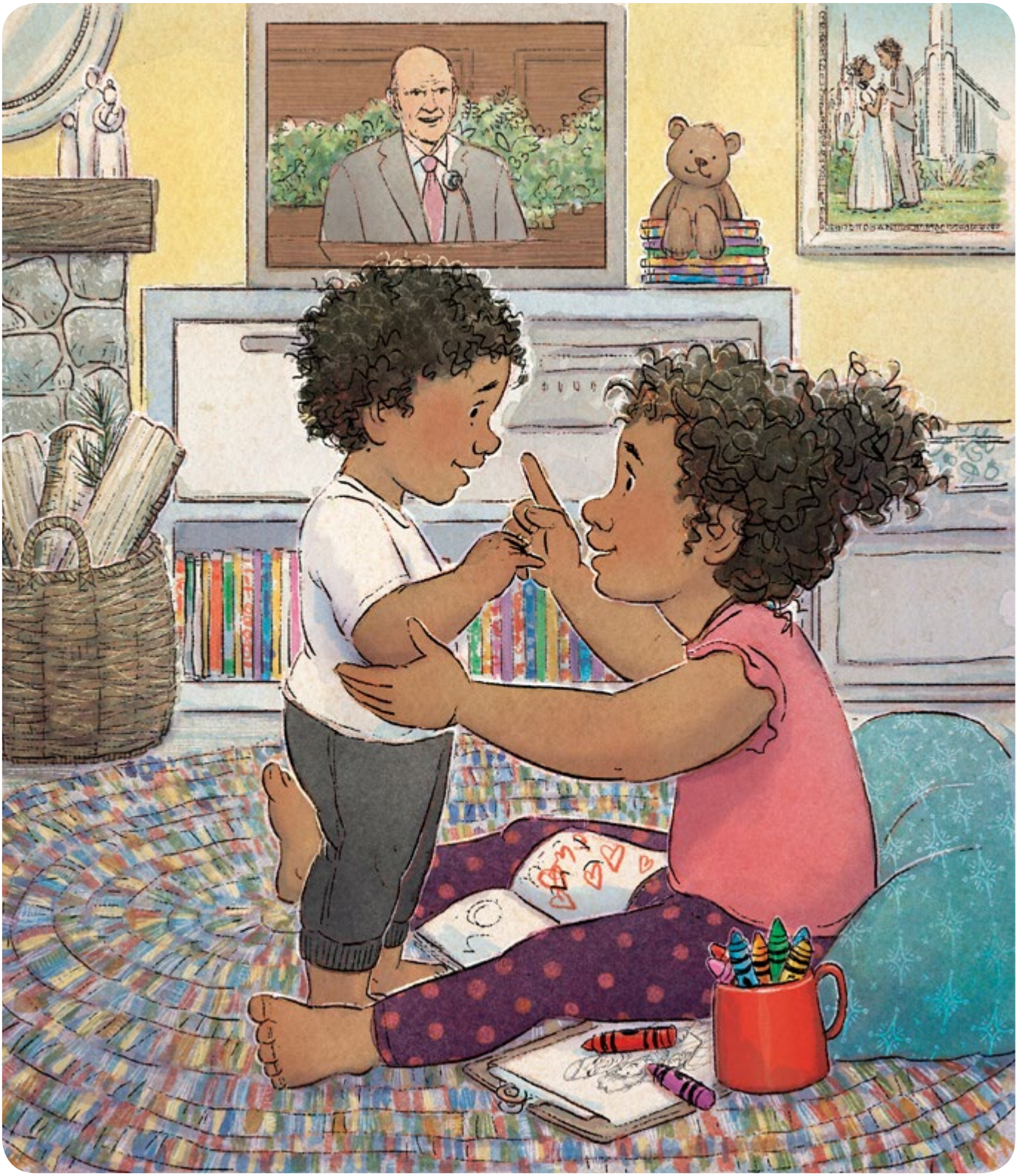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끄는 일을 도왔어요.
그때는 전화기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을 느낀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말해 주었어요.

바울의 편지는 정말 중요해서 성경에도 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신약전서에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 볼 수 있어요.

삽화: 에이프릴 스토트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

나는 성경을 사랑해요!

삽화: 에이프릴 스토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성전들과 관련해서 **올해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포르투갈에서 성전들이 헌납되었고, 그 외에도 몇 곳의 성전들이 재헌납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성전과 관련된 몇몇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번 호에서

- 성전 추천 접견 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친11쪽)
- 성전 의식이 필요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메이를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친12~13쪽)
- 성전으로 가는 첫 여행에 나선 어린이의 이야기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친14~15쪽)

자녀에게 잡지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찾아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 성전 보고 싶어"라는 문장을 써 보거나 성전에 있는 자기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진심으로 보고 싶군요!

여러분의 삶은 성전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친구들

자녀의 작품이나 경험담을 『리아호나』로 보내고 싶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은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목차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친4 당뇨병이 사라지는 대신
친6 안녕하세요? 여기는 러시아예요!
친8 개구리 공주의 용서
친10 재미있는 활동: 연차 대회 네 칸 채우기 게임!
친11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친12 가족 역사, 한 걸음 한 걸음씩
친14 성전에서 느끼는 평안
친16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카보베르데로 간 래스번드 장로
친18 어린이 발표
친19 면도와 실수
친20 경전 이야기: 바울의 편지
친23 색칠하기: 나는 성경을 사랑해요!

『친구들』 표지
삽화: ADOBE STOCK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KOREAN
4 021860 09320 1